

Beloved! Paradise! Jazz!?

NO THANK YOU

SCARING THE HOES

UTOPIA

Magic 3

We Buy Diabetic Test Strips

Burning Desire

Quaranta

MICHAEL

That! Feels Good!

DÉTHWAT

Let's Start Here

Lahai

Maps

Fountain Baby

Sickman.

SOS

Heroes & Villains

Sundial

A Great Chaos

CALL ME IF YOU GET LOST

The Estate Sale

NEVER ENOUGH

PUNK TACTICS

Intergrated Tech Solutions

Voir Dire

ut A Controlled Explo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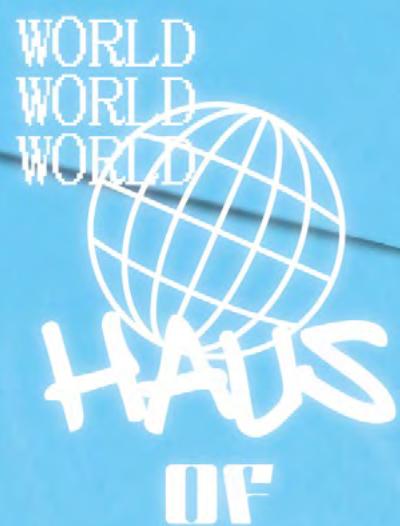
thing To Give Each Other

Javelin

Heaven Knows

I under the Ocean Blvd

HELLMODE



# MATTERS

한국어판

December, 11th

KHL Presents

# CONTENTS

Macintosh HD > KHL > Magazine > world Haus of Matters

W/HOM

01 New Releases

02 Full Reviews

03 Classic Album Reviews

04 Featured

05 Year Recap

즐겨찾기

AirDrop

응용 프로그램

W/HOM

2024 RECAP

Downloads

Haus of Matters

HIPHOPLE

iCloud

위치

태그

- 빨간색
- 주황색
- 노란색
- 초록색
- 파란색
- 보라색
- 회색
- 모든 태그...

# DECEMBER



01 New Releases

- 
- Lil Peep – Come Over When You're Sober, Pt.2 (og version)
  - Trippie Redd – Saint Michael V2
  - CJ Fly & Stoic – PIRANHA
  - Lil Wayne & 2 Chainz – Welcome 2 Collegrove
  - Wili – 14k Figaro
  - Pink Siifu & Turich Benjy – IT'S TOO QUIET..'!!
- SongChico  
45  
앞날



02 Full Reviews

- 
- Danny Brown – Quaranta
  - Aesop Rock – Integrated Tech Solution
- 온암  
ryuzimoto



03 Classic Album Reviews

- 
- Kanye West – 808s & Heartbreak
  - Jay Z – The Black Album
  - Snoop Dogg – Doggystyle
- 앞날  
온암  
ryuzimoto



04 Featured

- 
- 힙합과 영화 2부 – 힙합과 영화의 유기적 역사 2
  - 제 3국의 힙합 음악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 영국, 미국말고.
  - 흑인 커뮤니티에서 힙합과 농구란?
- 온암  
SongChico  
45



05 Year Recap

- 
- Metro Boomin – Heroes & Villains
  - SZA – SOS
  - Little Simz – NO THANK YOU
  - Lil Yachty – Let's Start Here
  - JPEGMAFIA & Danny Brown – SCARING THE HOES
  - Tyler, The Creator – CALL ME IF YOU GET LOST : The Estate Sale
  - Daniel Caesar – NEVER ENOUGH
  - billy woods & Kenny Segal – Maps
  - McKinley Dixon – Beloved! Paradise! Jazz!?
  - Killer Mike – MICHAEL
  - Travis Scott – UTOPIA
  - Noname – Sundial
  - Joey Valence & Brae – PUNK TATICS
  - Nas – Magic 3
  - Armand Hammer – We Buy Diabetic Test Strips
  - Earl Sweatshirts & The Alchemist – Voir Dire
  - Ken Carson – A Great Chaos
  - MIKE – Burning Desire
  - Sampha – Lahai
  - Aesop Rock – Intergrated Tech Solutions
  - Danny Brown – Quaranta



06 etc.

[Editors' Pick 결산!]

- Kelela – Raven
- Jack Harlow – Jackman.
- Jessie Ware – That! Feels Good!
- HiTech – DETWAT
- Amaarae – Fountain Baby
- Iceboy Violet – Not A Dream But A Controlled Explosion

[기타장르 결산]

- Ana Frango Eletrico – Me Chama De Gato Que Eu Sou Sua
- yuele – softcars
- Sufjan Stevens – Javelin
- Lana Del Rey – Did you know there's a tunnel under the Ocean Blvd
- Jeff Rosenstock – Hellmode
- PinkPantheress – Heaven Knows
- Swnas – The Beggar
- Troye Sivan – Something To Give Each Other

11

# NEW RELEASES

12

01 New Releases

**Track Lists**

1. It's Too Quiet..!!
- 2. WYWD..!?**
3. NXGGA LEAGUE..!!
4. lookin..!! (gorgeous)
5. Jeff Hamilton..!!
6. Velvet Room..!!
7. exxxtra prelude..!!
8. exxxtra..!!
9. Cadillac or Lex..!!
- 10. X..!!**
11. RIP Brittany Murphy..!!
12. Pig Head..!!
13. SWAMP..!!
14. Keith Sweat..!!
15. UPTOWN..!!
16. What Eye Be-came..!!
17. Iss On De Floe..!!

2023.10.31

w/HOM



## IT'S TOO QUIET..!!

Pink Siifu & Turich Benjy

Editor 앞날

R&B와 힙합 내의 수많은 장르를 오가며 작품을 연달아 내던 핑크 시푸(Pink Siifu)가 신인 래퍼 투리치 벤지(Turich Benjy)를 만나서 일궈낸 합작 <It's Too Quiet.. !!>은 이제껏 남부힙합과 트랩 안에서 보여줬던 모든 유행의 선도를 모아둔 앨범으로 느껴진다. 각 트랙마다 다양하게 참여한 프로듀서부터 피쳐링진까지 본 앨범의 감상은 마치 핑크 시푸와 투리치 벤지를 중심으로 여러 명이 참가한 클럽과 같은 공연장을 연상시킨다는 점이 주요하다. 이들의 작업 방식이 한 크루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형식이기에 촉발되는 감상으로, 덕분에 풍부하고도 자극적인 맛을 제공한다. 핑크 시푸의 흥미로운 디렉팅 능력이 빛이 발하는 시점은 각 트랙 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음에 있다. 단순히 트랩 위의 얼터너티브 랩을 발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과감하게 피쳐링 전에 바통을 넘겨주며 맘껏 활약할 수 있게 무대를 빌려준다는 점이다. 그 덕분에 핑크 시푸 본인과 투리치 벤지만이 노는 무도회장이 아니라, 한 크루 내의 각자가 무거운 베이스와 깔끔한 신디사이저의 비트 위에서 독특한 색깔을 맘껏 내뿜는 활기찬 클럽 분위기의 앨범을 완성할 수 있었다.

**Track Lists**

1. broken smile - og version
2. runaway - og version
3. sex with my ex - og version
- 4. cry alone - og**
- version
5. leanin - og version
6. sixteen lines - og version
7. idgaf - og version
8. white girl - og version
9. fingers - og version
10. in the car

2023.11.10



## Come Over When You're Sober, Pt. 2 (og version)

Lil Peep

Editor SongChico

기존에 발매되었던 <Come Over When You're Sober, Pt.2>는 릴 펫 (Lil Peep)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생전에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길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매되었다. 결국 레이블의 의도대로 완성되고 세상에 공개된 앨범은 생전에 릴 펫이 발매하던 음악과는 다른 감성과 더욱 팝적인 사운드를 가지게 되었고, 이 앨범은 릴 펫의 팬들 사이에서 아쉬움이 남은 앨범이 되었다. 이 생각은 릴 펫의 전담 프로듀서와도 같은 존재인 Smokeassac에게도 남아 있었으니, 올해 11월, 이 앨범의 5주년을 맞아 릴 펫의 하드에 남아 있던 초기 버전을 유가족과 함께 세상에 공개하기로 하여 <Come Over When You're Sober, Pt.2 (og version)>이 발매되었다. "Life is Beautiful", "Hate Me"를 제외한 9개 트랙의 초기버전과 발매과정에서 누락된 "in the car" 가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며, 다듬어지지 않은 사운드 덕에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처절하고 우울한 감정이 더욱 배가된 상태로 전해져 기존에 발매되었던 버전보다 오히려 이 앨범이 곡들과 같은 시기에 제작되어 앨범으로 발매된 <Come Over When You're Sober, Pt.1>의 후속작으로 더욱 적합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사후앨범으로 인해 아티스트의 작품성이 훼손되고 아티스트의 팬들이 상처받는 많고 많은 사례를 사이에서 릴 펫의 유가족은 팬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사례들을 남기고 있다.



w/HOM



검색

## Track Lists

**1. Triple Figaro**

2. Turkish Gold
3. RL
4. Purity
5. Scenic Route
6. Numb
7. Fried Ice Cream
8. Lilypad
- 9. That Ain't Pat**
10. Bubba
11. Golden Child
12. The Enterprise
13. Weed Song
14. New Religion

2023.11.10

**14K Figaro**

Wikki &amp; Tony Seltzer

Editor 앞날

맨해튼 출신의 래퍼 위키(Wiki)는 힙합 그룹 RATKING의 시작부터 솔로 데뷔를 한 이후에도 <No Mountains in Manhattan>, <Half God>과 같은 수작을 내며 홀륭한 커리어를 이어왔다. 그리고 오랜 협력자인 프로듀서 토니 셀처(Tony Seltzer)가 함께한 <14k Figaro>도 그 홀륭함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길함을 자극하는 샘플로 시작하여, 때로는 따뜻한 감성을 주는 소울풍의 샘플까지, 앨범 내의 획기적인 비트 전환과 드럼 소리를 조개는 등의 시도는 본 앨범이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설명해준다. 그런가 하면 위기는 수없이 돌아가는 비트를 능수능란하게 소화해낸다. 마치 솔에 취한 무용수처럼 빼곡하게 수놓은 라임의 랩을 사랑하며 말이다. 그렇다고 이야기의 내용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폭발적인 비트 전환을 사랑하는 오프닝부터 불안한 진향을 남기는 앤딩까지, 리스너는 위기가 겪은 편집증과도 같은 우울과 알코올 중독의 일화에서 래퍼로 성장해 온 순간을 감상할 수 있다. 과거에 따른 비트의 기발한 활용에 이은 수많은 비트 스위칭 그리고, 솔에 취한 개구리의 진화론은 토니 셀처와 위기가 얼마나 창의적이며 역동적인지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 둘의 콜라보는 전통적인 랩과 샘플링의 매력에 대한 새로운 헌사로서 홀륭한 프로젝트 앨범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을까.

## Track Lists

**1. Scene 1: Welcome 2 Collegrove**

2. G6
3. Big Diamonds (feat. 21 Savage)
4. Presha
5. Long Story Short
6. Scene 2: Duffle Bag Boys
7. Millions From Now
8. Crazy Thick
9. Transparency (feat. USHER)
10. Significant Other
11. Scene 3: Ladies Man

**12. P.P.A. (feat. Fabolous)**

- 13. Oprah & Gayle (feat. Benny The Butcher)**
14. Shame
15. Bars

**16. Scene 4: No Fent**

17. Godzilla (feat. Vory)
18. Crown Snatcher
19. Can't Believe You (feat. Rick Ross)

**20. Scene 5: Never Was Lost**

21. Moonlight (feat. Marsha Ambrosius)

2023.11.17

**Welcome 2 Collegrove**

2 Chainz &amp; Lil Wayne

Editor 45

릴 웨인(Lil Wayne)과 투 체인즈(2 Chainz), 애틀랜타 출신의 두 거장이 합작 앨범을 냈다. 남부 힙합의 대명사와 도 같은 애틀랜타 트랩은 어느새 클래식 장르로 불려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오래되었다. 애틀랜타 트랩의 전성기와 함께한 이 둘의 조합은 우리의 예상에서 한 치 어긋나지 않는 것마냥, 무난하게 평직을 배출했다. 힘찬 관악기 연주와 강렬한 808 베이스 하에 특유의 쫀득한 랩핑과 끊이지 않는 플로우가 앨범을 탄력적으로 감싸주며 오락적 특성을 더욱 강조한다. 전반부는 21 Savage, Usher 등의 힘을 빌려 그동안 그들이 해오던 정통 트랩을 구사하는 방면, 중반부에는 Benny The Butcher, Fabolous와 함께하며 “P.P.A.”, “Oprah & Gayle”, “Shame” 등 은은히 퍼지는 올드스쿨 블루스를 베테랑답게 완벽히 소화해낸다. 이외에도 소울풀한 샘플링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다소 깊고 컨셔스한 분위기를 잘 끌어낸 것도 이 앨범의 특징이다. 이들이 그동안 지나온 긴 커리어에서 비롯되는 진한 언륜은 이 앨범을 통해 충분히 발산됐으며, 생각보다도 진중하고 담백한 분위기의 앨범으로 완성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w/HOM



검색

## Track Lists

1. #RBDG
2. Popular (w/ 9lives)
3. Wizard 101
4. Pepe Lit
5. Snail Shells
6. TrippieSuave
7. Moncler Coat
8. Pray 4 Us
9. Van Cleef Island
10. 1716 Osage
11. Ok, Cool
12. 7am in Ohio
- 13. Yo Pi'erre Slime**
- 14. Saint Michael Myers**
15. Psychotic Lunatic
16. #SDWL ;)
17. Skeletons

2023.11.24

**Saint Michael V2**

Trippie Redd

Editor 45

트리피 레드(Trippie Redd)는 최근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됐음을 밝혔다. 아들의 이름이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인 <Saint Michael V2>는 이름과 배경만 거창할 뿐, 남은 건 실망뿐인 앨범이었다. 본작을 발표하기 전 공개한 믹스테이프 <Saint Michael>는 준수한 완성도로 후속작에 대한 기대를 샀지만, 확장판에 해당하는 이번 앨범은 그의 단점만 여실히 노출시켰다. 선공개 싱글 중 “7am in Ohio”와 “Saint Michael Myers”를 통해 보여준 스타일은 일단 참신하게 다가왔다. 기존의 무채색 드릴을 트리피 레드의 장점인 중독적인 멜로디와 합쳐 리드미컬한 드릴로 개조했는데, 이 두 트랙은 새로운 장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트리피만의 장점도 잘 살리지 못한 비트도 수두룩했고, 있더라도 3년 전과 달라진게 없는 자가복제식 사운드에 지나지 않았다. 마치 중심부만 겨우 지켜낸 벌레 먹은 사과처럼 말이다. 대표적으로 “Popular”, “Wizard 101”, “Pepe Lit”, “Skeletons” 등 이도 저도 아닌 트랙이 난무하는 앨범이었다. 이 앨범을 들을 바에, 차라리 <Saint Michael>을 한 번 더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 Track Lists

1. PIRANHA
- 2. USED TO BE BROKE**
3. CIAO! (feat. Lord Apex)
4. LOVE ME 4 ME (feat. Blvck Svm)
5. BUMBO
6. EIGHT8ALL (feat. Nyck Caution)
7. QUASIMODO
8. BALLET IN TRAFFIC
9. SANGRE / AGUA (feat. Mick Jenkins & AMARAH)
10. ALL DAY ERYDAY
11. HATE 2 SEE U GO

2023.11.24

**PIRANHA**

CJ Fly &amp; Stoic

Editor 45

Joey Bada\$\$의 앨범 <1999> 중 3트랙에 참여하며 큰 인상을 남겼던 씨제이 플라이(CJ Fly). 올드스쿨의 팬답게 이번 작 역시 그만의 시선과 입맛으로 옛 것을 복각해낸다. 이 앨범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프로듀서 스토퍽(Stoic)인데, <PIRANHA> 이전 이렇다 할 작업물이 없는 프로듀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준급의 프로듀싱 능력을 보여줬다. 어두운 분위기를 기반으로 담백한 샘플을 동원하고 기억한 차跩을 행한다. 이외에도 실제 피아노와 플롯을 동원하며 사운드를 채웠으며, 이는 무거운 분위기 위에 커션스합을 추구하는 최고의 바탕이 되었다. 스토퍽의 깔끔한 비트 위에 랩을 하는 씨제이 플라이의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현란한 랩을 토해낸다. 대표적으로 “EIGHT8ALL”, “USED TO BE BROKE”, “QUASIMODO” 등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스토퍽의 비트에 따라 랩 스타일과 플로우가 자유자재로 변하는 씨제이 플라이의 감각 또한 대단했다. 전체적으로 실제 악기를 기반으로 만든 재즈 선율이 인상 깊었으며, 뛰어난 비트에 호응하는 씨제이 플라이의 비트 이해도도 수준급이다. 하지만 씨제이 플라이의 랩보단 스토퍽의 프로덕션이 더 눈에 띄는 독특한 앨범이었으며, 블랙 프로듀서계의 새로운 이름을 힙합 팬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킨 계기가 될 것이라 자신한다.



02 Full Reviews



## 02 Full Reviews

12.11MB, 2개의 항목

Danny Brown - Quaranta  
Aesop Rock - Integrated Tech Solutions



Danny Brown  
- Quaranta



Aesop Rock  
- Integrated Tech Solutions

# QUARANTA

# DANNY BROWN

**1 QUARANTA**

**2 TANTOR**

**3 AIN'T MY CONCERN**

**4 DARK SWORD ANGEL**

**5 Y.B.P (FEAT. BRUISER WOLF)**

**6 JENN'S TERRIFIC VACATION (FEAT. KASSA OVERALL)**

**7 DOWN WIT IT**

**8 CELIBATE (FEAT. MIKE)**

**9 SHAKEDOWN**

**10 HANA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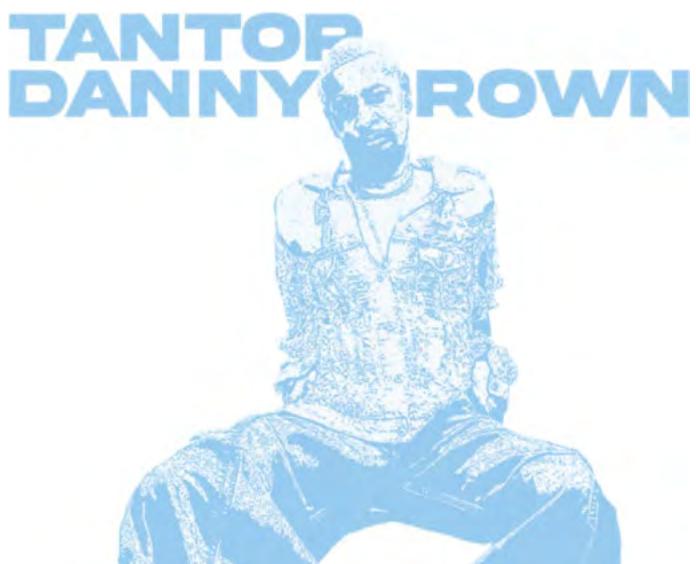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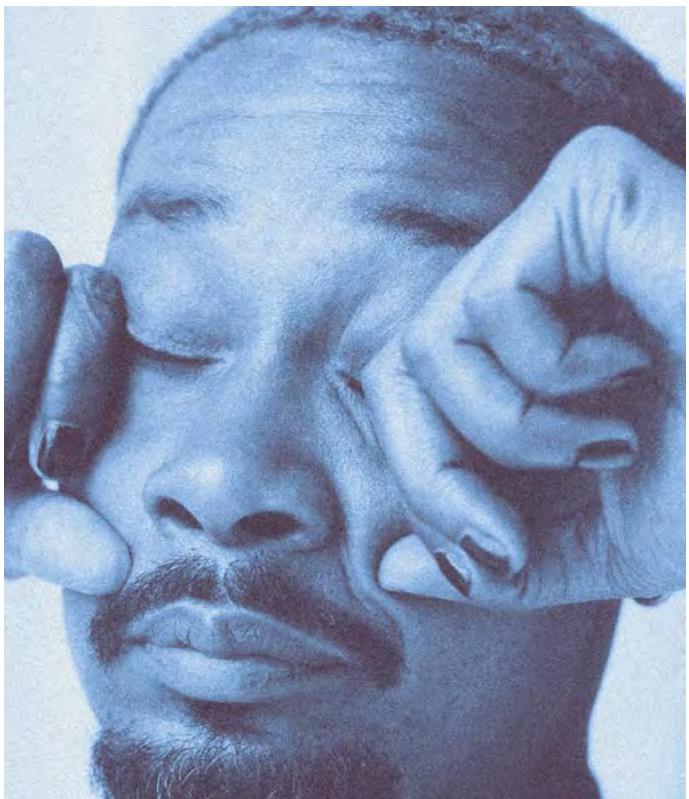
**11 BASS JAM**

**EDITOR** 201



# 'Quaranta', 이탈리아로 40. 힙합 씬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기한 존재감을 고시하던 디트로이트 래퍼는 어느새 불혹에 들어섰다.

40세, 이제 한 인간으로서도 딱히 젊지 않고 아티스트로는 늙었다는 소리를 들을 나이에 대니 브라운(Danny Brown)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사별, 알코올 중독 치료 목적의 재활원 입원을 동시에 경험했다. 삶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이제 사뭇 다르다. 깨진 앞니와 너저분한 머리의 광인은 어디 가고, 언더그라운드 음악가로서의 삶을 짊어진 무게감이 우리를 빤히 응시하는 이목구비의 굴곡에서 물어나온다. 그의 시선과 음반의 내용물이 당신에게 어떠한 감상을 전달할지 정확히 예측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목도하게 될 광경이 <XXX>의 방탕한 괴짜도, <Atrocity Exhibition>의 중독자 거장도, <SCARING THE HOES>의 유쾌한 삼촌도 아닌, 그의 가장 중요한 일면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전 작품이었던 JPEGMAFIA와의 합작 <SCARING THE HOES>와 The Alchemist가 프로듀싱한 선공개 싱글 “Tantor”를 청취하고 광기에 젖은 코미디언 대니 브라운의 모습을 기대했다면, <Quaranta>는 결코 그런 부류가 아니다. 지난 정규 <uknowhatimsayin?>의 기조를 잇는 본작은 Q-Tip이 총괄한 전작만큼의 응집력을 갖추진 못했으나 대니 브라운 음악 특유의 음산한 사이키델릭 기류에 보다 집중했다. Quelle Chris, Paul White, Kassa Overall 등 대니 본인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이 프로듀서로 참여해 사운드 소스를 최소화시키며 음험하고 매니악한 B급 감성을 자아낸다. 그것이 어느 정도라면, 그 “Tantor”가 평범하게 들릴 정도이다.

“This rap shit done saved my life”, 앨범의 오프닝인 “Quaranta”를 대니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극적인 인트로로 만들며 앨범 전반에 성찰적인 톤을 조성한 한 마디이다. 대니 브라운의 디스코그래피를 통틀어 가장 미니멀하고 개인적인 이 작품은 구성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용이하게 분류할 수 있다. “Quaranta”부터 “Jenn’s Terrific Vacation”까지의 전반부는 이전 대니의 모습을 남겨놓는 배려를 행한다. Westside Gunn의 “Red Death”와 동일한 샘플을 기반으로 제작된 “Dark Sword Angel”의 강렬한 비트, “Y.B.P.”에서 관측되는 디트로이트에 대한 신랄한 애증, 젠트리피케이션을 염기적으로 풍자한 “Jenn’s Terrific Vacation”까지 대니는 경박함과 무게감을 적절한 선에서 융합한다.



반면 “Down wit it”부터 “Bass Jam”까지의 후반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정적이고 자기성찰적인 대니 브라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점에 위치한다. 결별 후의 심경을 감정적으로 담아낸 “Down wit it”的 체념을 시작으로, 앨범은 대니 브라운의 서정성과 프로덕션을 일치시키기 시작한다. 특히 “Celibate”는 샘플링과 비트, 리릭시즘, 감정선, MIKE의 피쳐링까지 앨범의 베스트 트랙이라 찬사하기 부족함이 없어보인다. 개인사를 허탈하게 읊는 대니 브라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마침내 베이스와 클랩, 백그라운드 보컬만으로 구성된 단출한 “Bass Jam”에 이르서서는 옛된 목소리로 과거의 기억을 짚어나가기 시작한다.

때문에 *<Quaranta>*는 그 구성과 주제에서 작년 Kendrick Lamar의 5집 *<Mr. Morale & The Big Steppers>*를 연상케 한다. 특히 두 아티스트의 나이부터 디스코그래피에서 앨범의 순서, 장단점마저도 무척이나 닮아있다. 그 서정성을 구축하는 퍼포먼스의 면에서 무기력함보다도 더 나은 대안이 몇몇 상기된다는 점에선 더욱 말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라면, Kendrick이 앨범의 엔딩인 “Mirror”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더 나은 미래를 종용한 것과 달리 대니는 그저 고뇌와 회고만을 반복할 뿐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Bass Jam”이 남기는 내향적 여운은 지대하다. 가장 무력한 인간상의 제시로써 앨범을 미결하기에 *<Quaranta>*의 드라마는 처연하기 짝이 없다.

돌이켜보면 2023년은 앱스트랙 힙합이 맞이하는 제 2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장르의 수작들이 연속적으로 배출된 해였다. *<Maps>*, *<We Buy Diabetic Test Strips>*, *< Burning Desire>*, *<Integrated Tech Solutions>*, 그리고 그 흐름의 마침표를 찍은 *<Quaranta>*까지. 이 음반에서는 광포한 익스페리멘탈 힙합 프로덕션도, 대니의 정력적인 래핑도 찾아갈 수 없다. 하지만 *<Quaranta>*야말로 대니 브라운 본연의 모습에 가장 가까워보임에는 틀림없다. 본작에 대한 수많은 호오가 방증하듯 *<Quaranta>*에게 ‘대작’이란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으나, 분명 대니 브라운이라는 개인과 그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선 분명 단순한 수식어 따위보다도 훨씬 귀중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그리고 이 남자의 미래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러리라 희망한다.

# INTEGRATED TECH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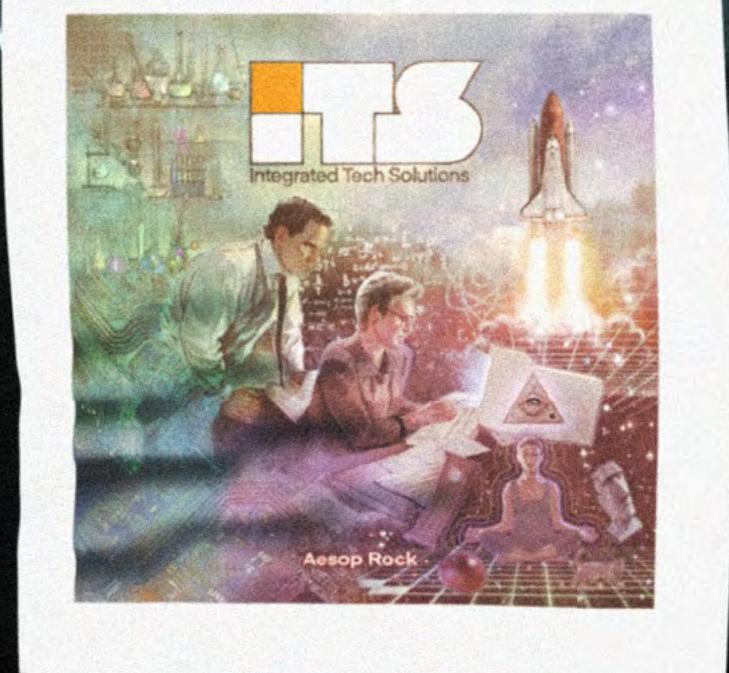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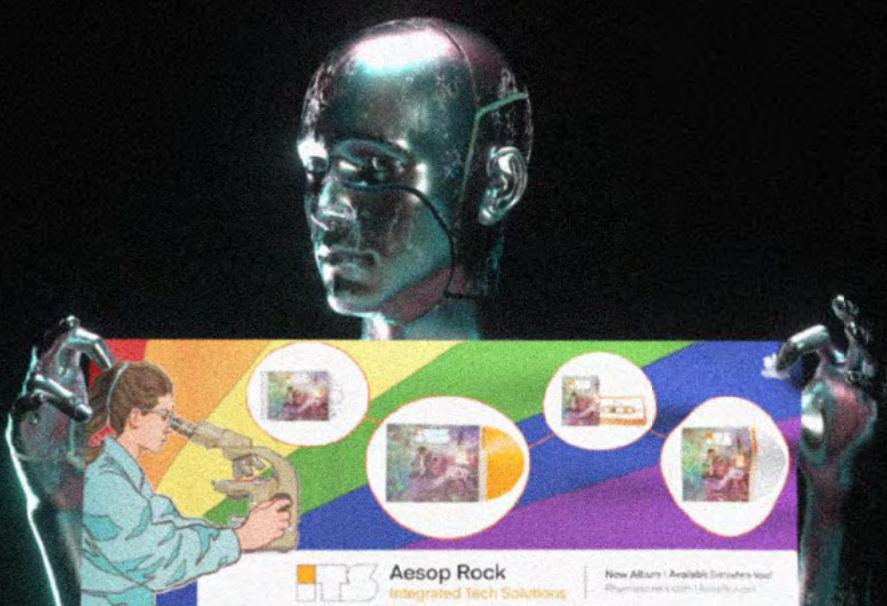
AESOP ROCK

1. The ITS Way
- 2. Mindful Solutionism**
3. Infinity Fill Goose Down
4. Living Curfew
5. Pigeonometry
6. Kyanite Toothpick
7. 100 Feet Tall
8. Salt and Pepper Squid
9. Time Moves Differently Here
10. Aggressive Steven
11. Bermuda
12. By The River
13. All City Nerve Map

## **14. Forward Compatibility Engine**

15. On Failure
16. Solid Gold
17. Vititus
18. Black Snow

Editor ryuzimoto



# 음악은 정치, 사회는 물론 그 어떠한 것도 메시지로 전달해 줄 수 있으며 이는 현대 중음악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아티스트는 특정한 주제의식이나 컨셉을 선택하여 본인의 작품에 메시지로 온건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역량은 필수적이며 동시에 아티스트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문득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다. 그럼 어떠한 메시지가 좋은 평가로 귀결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즉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솝 략(Aesop Rock)이 11월에 발매한 앨범 <Intergrated Tech Soulutions>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전언은 23년 힙합 작품 중 가장 눈에 띈다는 점이다.

과학 기술의 성장으로 진화된 문명, 또 여기에 맞춰 일어나는 인간관계와 일상 혹은 이슈. 이 모든 것들이 이솝 략의 정규 <Intergrated Tech Soulutions>의 주제이자 메시지이다. 조금은 전문적이고 복잡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앨범에서 말하는 'Intergrated Tech Soulutions', 즉 ITS의 정의(여러 가지 경험을 선별하기 위해 디자인된 라이프스타일 및 산업 애플리케이션 시스템)를 짚어주는 인트로인 "The ITS Way"부터 앨범의 확실한 포맷을 잡아가며 밀도 있는 몰입감을 선사해 준다. 이후 바통을 이어받는 2번 트랙 "Mindful Soulutionism"에서는 250만 년 전 우리가 돌을 사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지탱하고 있는 과학의 발전을 흥미롭고 디테일하게 서술하며, 동시에 무차별적인 발전으로 인한 디스토피아적 현상을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이솝 략의 전작들을 포함, 블랙칼리셔스(Blackalicious)의 <Blazing Arrow> 등 몇몇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에서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접한 적이 있다. 하나 과거의 어떠한 작품들과 <Intergrated Tech Soulutions>를 비교했을 때 분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고도로 발달된 현 시점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일상과 사회의 진면목을 이솝 략의 시선에서 그려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난과 죽음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Black Snow", 친구들과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소소한 일상을 말하는 "Salt and Pepper Squid" 또한 이솝 략의 아파트에 침입한 마약중독자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결핍을 비판하는 "Aggressive Steven"을 포함한 리스트 전반적으로 이 같은 면모들이 드러난다. 어찌 보면 앨범의 주된 주제와는 조금은 어긋나고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의 배경이 발달된 문명의 현대 사회라는 것을 다시 끔 인식한다면 난잡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또한 이러한 빌드 업은 그가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즉 완벽한 과학보다 더 가치 있는 건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을 더욱 더 뚜렷한 초점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솝 략과 그가 속해있는 힙합 듀오인 Malibu Ken의 음악을 상징하는 장르는 분명 익스페리멘탈 힙합이다. 하지만 그의 전작들을 쭉 훑어봤을 때 그 수위는 괴랄하거나 지나치지 않다. <Intergrated Tech Soulutions> 도 이 같은 스템스와 매한가지이다. 아니, 도리어 더 느긋하거나 절제된 프로덕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풍부하게 울려 퍼지는 재지함의 "By The River"와 유려한 키보드 선율이 울려 퍼지는 "Vititus"에서 더 돋보인다. 물론 그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변덕스럽고 신경질적인 볼륨의 략 사운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해 긴장감을 선사해 주기도 한다. 이 외에도 리드미컬하면서도 노이즈한 글리치 합이 이끄는 "Mindful Solutionism"과 트립 핫 질감이 연상돼 오묘한 바이브를 자아내는 "Living Curfew" 까지 모든 트랙이 매력적인 사운드를 제시한다. 묵직하게 짓누르는 듯한 톤의 그의 랩은 기교스럽지만 않지만, 확실하게 담백하며 단 한 순간도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적절하게 융화되어 마치 또 하나의 악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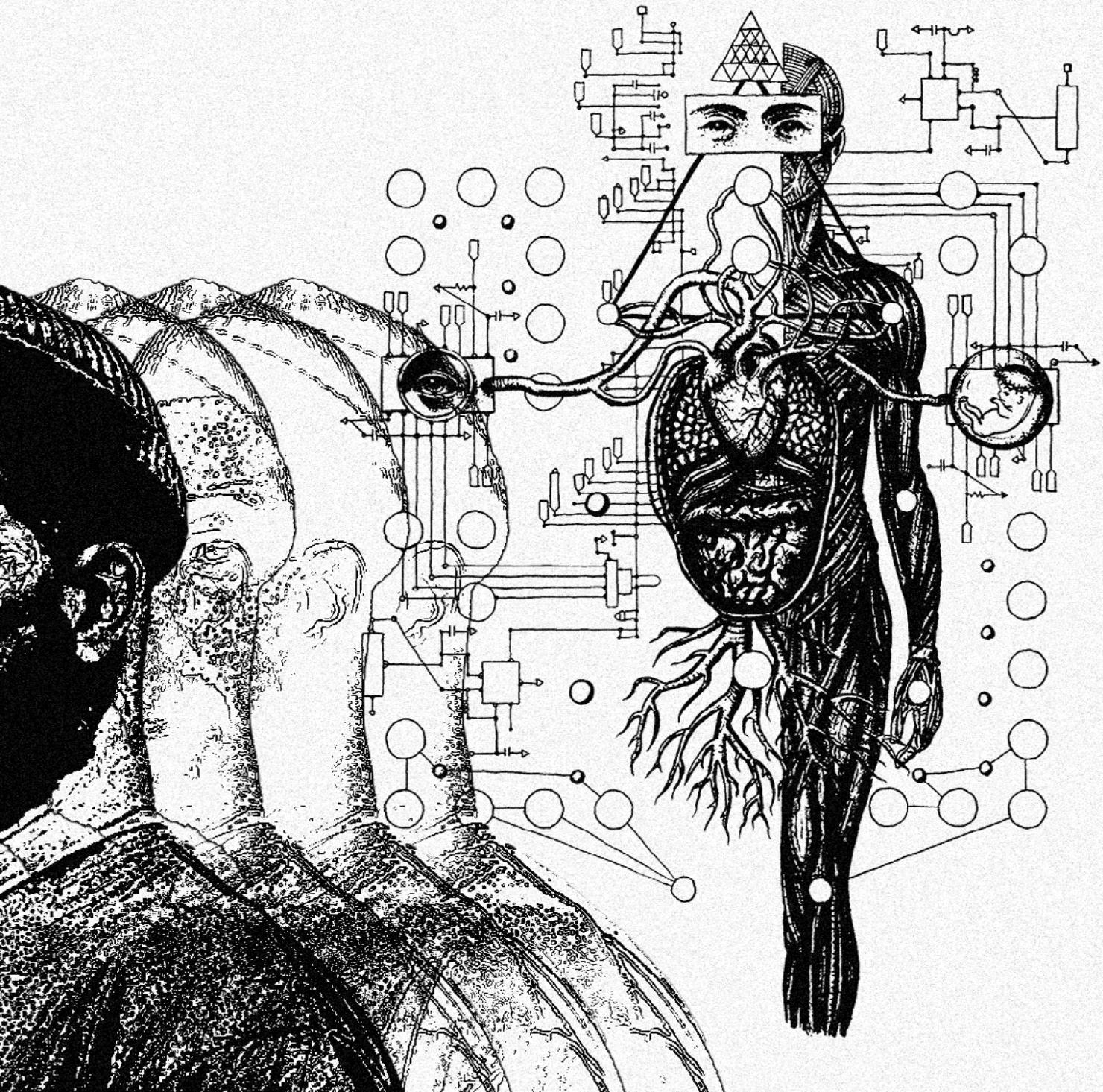


카마셀 힙합을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향하고 있는 이술 락,

그는 확실하게 아이코닉한 존재이다.

거기다 어느덧 5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창의적인 리릭시즘과 결출한 프로덕션은 여전하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글자탑의 성과이며 그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본작 <Intergrated Tech Soultions>는 힙합이 보여 줄 수 있는 진일보이다.



# Classic.



*World, Haus of Matters*

Kanye West  
- 808s & Heartbreaks

Jay Z  
- The Black Album

Snoop Dogg  
- Doggystyle



<808s & Heartbreak>, 제목 그대로 TR-808 드럼 머신과 칸예 웨스트(Kanye West)가 실연으로 겪은 아픔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앨범 제작 당시 칸예 웨스트는 정서적 지지자이자 스승이었던 어머니의 죽음과 약혼녀와의 파혼이라는 비극을 맞이했으며, 본작은 그 실연의 아픔을 승화하고자 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칸예의 선택은 그의 음악 커리어에 있어 극적인 전환을 초래했다.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서기 전,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해보자. <808s & Heartbreak>는 힙합 음반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만이 입안을 맴돌게 된다. 간단한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본작이 힙합 앨범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받기 어려운 까닭은 그 방법론에 있다. 분명 힙합의 작법으로 앨범을 완성했음에도 주 요소들은 오토툰이 잔뜩 킴 보컬과 신스, 일렉트로닉이었다. 물론 힙합 특유의 샘플링이나 랩이 전무한 것은 아니나, 전작들과의 비교에선 현저히 줄어들었다. 샘플링의 빈 자리를 꿰차며 전체적인 틀을 잡은 주연들은 TR-808 드럼 머신과 오토툐 보컬이었다.

우선이 되는 TR-808 드럼 머신은 롤랜드 회사가 1980년대에 개발한 것으로, 실제 드럼 사운드와 거리가 멀며 기계음 위주의 조악한 질감으로 인해 초창기에는 다수에게 외면받은 기계이다. 실제 그로 인해 충분히 소비되지 못해 가격은 현저하게 낮아졌고, 때문에 역으로 빈민가 흑인들이 이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며 트랩이 탄생하기도 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칸예 웨스트가 어째서 그의 주특기였던 샘플링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기계를 선택했는지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며,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가 808 베이스의 특이한 전자음과 오케스트라 섹션의 이중주를 오토툐과 융합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우울감과 외로움, 그 너머의 상실감 자체에 있었다. 칸예는 808에게 내향적 감정 표현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새로이 부여했고, 기계음에서 독특한 인간적 감성을 창출했다.

# 808s & Heartbr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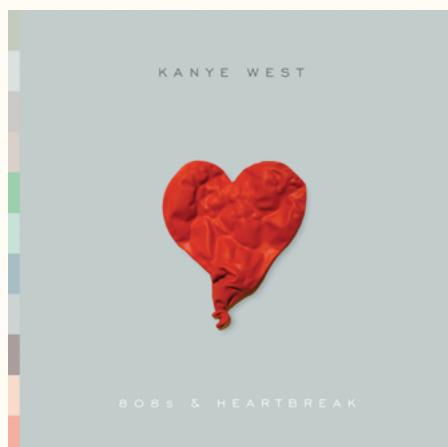
## Kanye West



그리고 그 감정, 비통(Heartbreak)의 적극적 표현은 다름 아닌 가사와 가창이 담당했다. 오토툤으로 점철된 칸예의 보컬로써 말이다. 사실 <808s & Heartbreak>이라는 제목을 <808s & Autotune>으로 바꾸어도 될 정도로, 칸예의 기계적인 음색은 앨범에 비통함을 가득 채운다. 다만 그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오토툤(Auto-Tune)에 관한 오해를 풀어보자. 첫째로 현재 프로듀싱 과정에선 이미 가공 및 처리를 위한 플러그인들이 널리 쓰이며, 둘째로 Hildebrand가 개발한 오토툤 역시 그러한 음정 교정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그렇다. 오토툤은 애초에 부전을 수정해 완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몇 아티스트들은 장치의 사용을 달리해 보컬의 이질감을 극대화하는 방향, 즉 완벽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것이 바로 오토툤의 독특한 사용법인 보컬 왜곡 효과였던 것이다. 그렇게 Sher의 “Believe”를 시작으로 T-Pain의 전격적인 오토툤 활용법이 등장했고, 칸예 웨스트는 T-Pain의 활용법을 전수받아 앨범 전체에 그만의 방식으로 오토툤을 훌뿌릴 수 있었다. 그에게는 오토툤이 곧 새로운 악기였으며, 부족한 가창 역시 오토툤을 통과한 순간에는 리스너의 감정을 우울의 선상에 올리는 또 하나의 ‘얼터너티브’가 되었다. 턴테이블리즘이 기준의 음악을 변형하는 행위인 것처럼, 칸예의 오토툤 방법론 역시 기준의 활용법을 거스른 것이었다. 그리고 칸예는 이를 영리하게 연주하며 본인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펼쳤다.

어쩌면 리스너들에게 칸예의 최고 장기가 그저 샘플링에 기반한 프로듀싱이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4집에서 칸예의 음악적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했을지도 모른다. 4집 이후의 칸예에게 ‘New Kanye’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도, 추후 “I Love Kanye”에서 본인이 직접 말했듯 변화한 그의 모습 역시 본질적으로 하나의 칸예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결국 Old Kanye와 New Kanye를 구분하게 된 계기는 칸예가 확장해 나간 음악적 범위에 대한 적응 여부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대에나 지금으로나 본작을 온전한 랩-힙합 작품으로 보기에는 불완전하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불완전에서 발견한 새로운 작법은 힙합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뿐만 아니라 일렉트로닉 팝과 알앤비 안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는 가치를 지닌다. 이것이 바로 칸예 웨스트가 그린 아트 팝(Art Pop)의 청사진이고, <808s & Heartbreak>의 짙은 잔향이다.

Editor 앞날



## 808s & HEARTBREAK KANYE WEST

- 
- |                  |                     |
|------------------|---------------------|
| 1. Say You Will  | 7. RoboCop          |
| 2. Welcome To    | 8. Street Lights    |
| Heartbreak       | 9. Bad News         |
| 3. Heartless     | 10. See You In My   |
| 4. Amazing       | Nightmares          |
| 5. Love Lockdown | 11. Coldest Winter  |
| 6. Paranoid      | 12. Pinocchio Story |

# JAY-Z

# THE BLACK ALBUM

“래퍼의 은퇴 선언은 믿을 것이 못된다.” 명실상부 최고의 래퍼 제이지(JAY-Z)의 은퇴 선언은 이 유명한 문구에 대한 최초의 사례이자 동시에 가장 유명한 사례이다.

“랩 게임에 예전과 같은 경쟁이 부족해 열정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퇴 사유를 밝힌 제이지의 결정을 그 누가 말릴 수 있었을까? 40세도 되지 않은 나이에 그는 랩 게임에서 그 누구보다 거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업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더 이를 것이 없어보였다. 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팬들에겐 제이지의 은퇴를 만류할 당위성이 없었고, <The Black Album>이라는 화려한 작별 인사가 발표된 후엔 더욱 그러했다.

그렇다. 이제 와서 보면 다소 부끄러울 지 모르는 제이지의 첫 은퇴로부터 정확히 20년이 지나간다. 비록 제이지가 첫 은퇴 전만큼이나 복귀 후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기에 다소 빛이 바랜 감이 있지만, <The Black Album>은 그 누가 들어도 이견이 없을 만큼이나 완벽한 커리어의 엔딩이었다. 비공식적인 뉴욕의 왕이 본신의 능력과 씬에서 축적한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제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결과물 말이다.

<The Black Album>은 어떠한 혁신이나 괄목할 진일보 등을 상징하지 않는다. 단지 랩 & 힙합 음반으로서의 완성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뿐이다. “프로듀서 한 명마다 한 개의 비트를 받아 앨범을 제작하겠다”는 대단한 포부에 걸맞게 평소 제이지 사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Kanye West, The Neptunes, Just Blaze를 제외하고 모든 유명 프로듀서들이 정말 한 개의 비트만을 제공해 14개의 곡으로 구성된 앨범이 완성되었다. 때문에 프로덕션의 완성도는 당대 최고라 평해도 될 정도로 높으면서도 유기성 면에서는 최악의 결과물이 탄생했다.

요컨데 “Change Clothes”와 “Dirt Off The Shoulder”만큼 뻔한 제이지의 커머셜 랩 싱글은 없으며, “Threat”만큼이나 9th Wonder 스러운 비트가 또 없다. “Moment Of Clarity”에서는 <The Eminem Show> 시절 Eminem의 존재감이 물씬 느껴지며, “99 Problems”는 Run-D.M.C.나 Beastie Boys의 비트가 시대를 초월해 2003년으로 넘어온 것만 같다. 각 프로듀서들의 특장점이 너무나도 수월히 발휘된 탓에, 수록곡 간들 사이 그 어떤 연결점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곡들의 장르적 성취도와 완성도가 너무나도 훌륭한 탓에 장점이 단점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물론 이렇게 극히도 개별적인 비트들을 하나의 음반으로 결집하는 원동력은 제이지 본인에게서 비롯된다. 6년 전 데뷔 때부터 이미 완성형의 랩 스킬을 갖췄던 제이지는 여유로움과 타이트함을 능숙하게 오가며 가히 완급조절의 교과서라 할 만한 랩 플로우를 선보인다. 씬의 최정상에 선 베테랑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톤으로 리드미컬하게 라이밍하는 그는 모든 비트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그가 괜히 최고의 래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랩 퍼포먼스뿐이 아닌 리릭시즘이나 경탄스러울 수준이다. 제이지는 필요에 따라 자기과시와 서정성을 취사 선택하며 다각적인 접근법으로 별스를 유연하게 전개했다. 이처럼 훌륭한 경지이기에, <The Black Album>은 그의 디스코그래피에서 순수히 ‘랩’만 평가했을 때 종종 최고작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 THE BLACK ALBUM

## JAY-Z

- 
- |                           |                      |                 |
|---------------------------|----------------------|-----------------|
| 1. Interlude              | 7. Threat            | 12. Lucifer     |
| 2. December 4th           | 8. Moment Of Clarity | 13. Allure      |
| 3. What More Can I Say    | 9.99 Problems        | 14. My 1st Song |
| 4. Encore                 | Announcement         |                 |
| 5. Change Clothes         | (Interlude)          |                 |
| 6. Dirt Off Your Shoulder | 11. Justify My Thug  |                 |



<The Black Album> 이후 3년 후, <Kingdom Come>으로 복귀를 선언한 제이지는 <The Blueprint 3>, <Watch The Throne> 등으로 자신의 세일링 파워가 2010년대에도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4:44>로 중견 래퍼가 예술성까지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봄소 보여주었다. 그 후 간간히 피쳐링만으로 등장할 뿐, 그는 그 어떤 프로젝트도 예고하지 않으며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어쩌면 제이지가 다시 활동할 여지만을 남기고 반점정적인 활동 중지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그 스스로도 이전의 은퇴작만큼이나 좋은 앨범을 제작할 수 없기에, “My 1st Song”만큼이나 장엄한 피날레를 써내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Editor 온암



# Doggystyle

SNOOP DOGG

- |                        |                                       |                    |
|------------------------|---------------------------------------|--------------------|
| 1. Bathtub             | 7. Serial Killa                       | 12. Gz and Hustlas |
| 2. G Funk Intro        | 8. Who Am I (What's My Name)?         | 13. Pump Pump      |
| 3. Gin and Juice       | 9. For All My Niggaz & Bitches        |                    |
| 4. Tha Shiznit         | 10. Ain't No Fun (If The Homies Can't |                    |
| 5. Lodi Dodi           | Have None)                            |                    |
| 6. Murder Was The Case | 11. Doggy Dog World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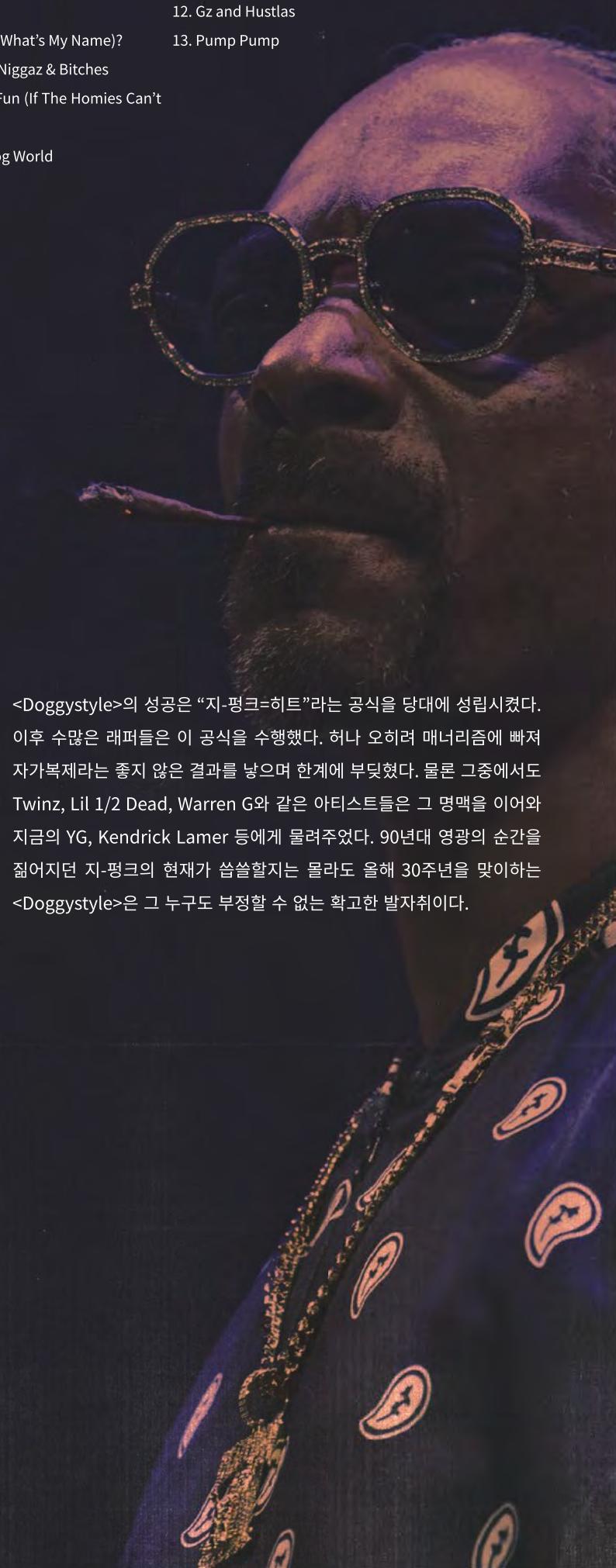
Editor ryuzimoto

후배위를 의미하는 지극히 외설적이고 원초적인 앨범 타이틀과 이를 시각적으로 뒷받침하는 재킷. 이 모든 건 <Doggystyle>이 발매된 93년도 기준,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스눕 독(Snoop Dogg, 舊 Snoop Doggy Dogg)의 자신감을 표출해 주는 장치이다. 그는 Dr. Dre의 <The Chronic> 16트랙 중 총 12트랙에 참여하여 이미 큰 주목을 받고 있었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지사였다. 이 <The Chronic>의 영향으로 당시 힙합 씬에서는 지-펑크라는 새로운 물결이 팽배했다.

지-펑크라는 명칭은 George Clinton이 속해있던 그룹 Parliament-Funkadelic에서 이름을 따온 피-펑크와 갱스터의 앞글자인 “G”를 조합한 것이다. 사운드적으로는 고막 한 편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사이키델릭한 신디사이저,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듯한 베이스, 적당한 무게감의 드럼과 중간중간 깔린 보컬 라인을 기본으로 한 느릿한 템포가 주된 특징이다. 여기에 갱스터의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가사를 뒤덮었다. 이는 적절하게 맞아떨어져 흔히 말하는 웨스트 코스트 힙합을 상징하는 키워드이자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

이 조류 속에서 스눕 독의 <Doggystyle>은 극에 달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며 힙합의 역사를 되짚어봐도 역시나 마찬가지이다. George Clinton의 내레이션과 독한 탱커레이 한 잔으로 시작하는 “G Funk Intro”부터 방점을 찍는 “Pump Pump”까지 다다르다 보면, 어느덧 지-펑크 에라(G-Funk Era)의 중심에서 즐겁게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광경은 스눕 독의 비범한 랩 스타일과도 닮아있다. “Laid-Back”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그의 랩은 여유롭다 못해 기분 좋은 나긋함을 선사해 준다. 또한 발성과 톤마저 지-펑크에 최적화되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술과 마약, 여자를 찬양하는 파티 송 “Gin And Juice”, 갱의 모습을 멋들어지게 녹여낸 “Gz and Hustlas”, 스눕독의 아이덴티티를 강렬하게 각인시켜주는 “Who Am I (What's My Name)” 등등 그는 본인의 랩을 매개로 갱스터를 망설임 없이 표현한다. 참여진들의 퍼포먼스도 빼놓을 수 없다. 총괄 프로듀서인 Dr. Dre, 지-펑크를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Nate Dogg, 그리고 The D.O.C와 Tha Dogg Pound를, 모든 이가 각자의 위치에서 군더더기 없이 스눕 독을 조력한다.



<Doggystyle>의 성공은 “지-펑크=히트”라는 공식을 당대에 성립시켰다. 이후 수많은 래퍼들은 이 공식을 수행했다. 허나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져 자가복제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으며 한계에 부딪혔다. 물론 그중에서도 Twinz, Lil 1/2 Dead, Warren G와 같은 아티스트들은 그 명맥을 이어와 지금의 YG, Kendrick Lamar 등에게 물려주었다. 90년대 영광의 순간을 짊어지던 지-펑크의 현재가 쓱쓸할지는 몰라도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Doggystyle>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발자취이다.



## 힙합과 영화의 유기적 역사 2.mov

Editor 온암

2010년대 들어서며, 이제 래퍼들은 그들의 앨범을 위해 단편 영화까지도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실 일전 언급한 바와 같이 래퍼들이 연기뿐이 아닌 연출의 영역에까지 발을 담ぐ는 것은 결코 희귀한 일까진 아니었으나, 화려한 영상미까지 추구하진 않았다. Kanye West의 정규 5집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에 대한 단편 영화 <Runaway>는 앨범 본작이 그라우트이 힙합 작품이 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술성을 성취했다. 말 그대로 그의 '아름답고 어둡고 뒤틀린' 환상을 내포한 30분 간의 단편은 인디 예술영화에 가까운 신화적 미쟝센과 상징적인 연출로 큰 호평을 얻었다. Kanye West가 지금껏 축적한 뮤직 비디오 미학의 집합체이자 Michael Jackson의 <Thriller> 이후 음악계가 가장 크게 이룬 비주얼 혁명이나 진배없다. 이는 추후 Beyoncé의 비주얼 앨범 <BEYONCE>와 단편 영화 <Lemonade> 등 팝 시장에서의 유사한 시도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 2023년 현재에도 Travis Scott이 <UTOPIA>를 위한 단편 영화 <CIRCUS MAXIMUS>로 디스토피아, 러브크래프트적인 비주얼을 선보임으로써 아직 힙합 시네마가 건재함을 알렸다.

H  
I  
G  
H  
T  
A  
C  
O  
N



2Pac, The Notorious B.I.G., Eminem, 50 Cent 등 힙합 전설들의 일생을 다룬 전기 영화들은 많았으나,  
'뮤지션' 자체를 다룬 전기 영화 중 <Straight Outta Compton>만큼이나 강력한 인상을 남긴 작품은 없었다.

그룹의 1집 앨범과 동명의 제목을 가진 이 전기영화는 서부의 전설적인 힙합 그룹 N.W.A의 결성과 해체를 다루며, Dr. Dre, Eazy-E, Ice Cube(실제 Ice Cube의 아들이 연기했다)을 주동인물로 진행된다. 실제 사건을 일부 각색함으로써 그룹의 이야기를 보다 극적으로 다룸과 동시에 음악의 급진적인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각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멤버들의 인간적 인 고뇌를 그려냈다. 미국 현지에서는 약 1억 6천만 달러라는 굉장히 상업적인 성과를 거둠과 동시에 큰 호평을 받았다. N.W.A.가 대표하는 힙합 또한 Ray Charles의 <Ray>, James Brown의 <Get On Up>, Queen의 <Bohemian Rhapsody>, Elton John의 <Rocketman>, Elvis Presley의 <Elvis>처럼 위대하게 조명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기념비적인 영화임이 틀림없다.





이전 힙합 영화에서 사운드트랙 앨범이 순수한 힙합 앨범인 사례는 많았으나, 타 장르 영화의 사운드트랙 앨범이 힙합 앨범인 경우는 전무했다.



**BLACK PANTHER**



**Kendrick Lamar의 <Black Panther: The Album>은 첫 주자로서의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치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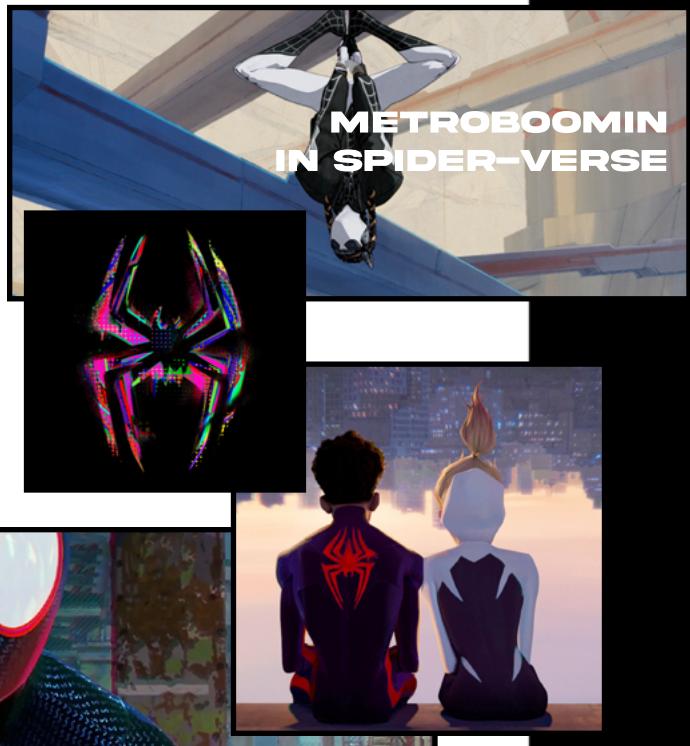
흑인 문화를 중점으로 다룬 영화 <Black Panther>의 사운드트랙으로 사용되기 무척이나 시의적절하게, Ludwig Göransson의 오리지널 스코어 앨범만큼이나 <Black Panther: The Album>은 힙합과 아프리카 음악을 자연스럽게 융합해냈다. Kendrick Lamar와 TDE 사단의 주도 하에 힙합 & 알앤비 씬에서 가장 큰 인기를 구가하는 유명 아티스트들이 앨범에 참여했으며, "All The Stars", "King's Dead", "Pray For Me" 등 수많은 히트 싱글들이 배출되었다. 본 컴필레이션 앨범은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석권하고 그레미 시상식 후보에 지명됨과 동시에, 현재까지 평론적으로도 호평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The Lion King>의 사운드트랙 앨범인 Beyoncé의 <The Lion King: The Gift>가 존재한다. Beyoncé를 필두로 수많은 흑인음악 뮤지션이 참여한 이 앨범은 추후 그녀의 개인 영화 <Black Is King>의 제작으로도 이어졌다.



**THE GRINCH**

위 두 앨범은 영화를 기초로 둔 공식 사운드트랙 앨범이 대중문화적으로 아프리카주의를 광범위하게 전파한 사례이다.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영화가 아티스트 개인에게 영향을 끼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Tyler, The Creator의 EP <Music Inspired by Illumination & Dr. Seuss' The Grinch>는 2018년작 애니메이션 <The Grinch>에서 Tyler가 영향을 받아 제작된 10분짜리 앨범이다. 영화 공식 사운드트랙 앨범에도 참여한 Tyler인 만큼, 앨범은 전체 기조적으로 <Flower Boy>를 연상케 하는 신시사이저 사용이 돋보이면서도 <The Grinch>만의 크리스마스 감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작은 영화의 평가와 상관 없이 Tyler의 팬들과 힙합 팬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Black Panther> 외에도 2018년 히어로 팬덤과 흑인 문화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화는 바로 <Spider-Man: Into the Spider-Verse>였다. 혁신적인 애니메이션 기법과 단단한 완성도의 왕도적 서사로 새로운 스파이더맨 명작이라는 평을 받은 작품은 역시 수많은 힙합 & 알앤비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사운드트랙 앨범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메가 히트곡 “Sunflower”는 아직까지도 최고조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후속작인 <Spider-Man: Across the Spider-Verse>은 더욱 중요하다. 영화 본편이 전작에 비해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만큼이나 사운드트랙 또한 지대한 의의를 지닌다. 트랩 음악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프로듀서 Metro Boomin이 전곡을 프로듀싱하고 화려한 합창에 인사들이 투입된 만큼 <METRO BOOMIN PRESENTS SPIDER-MAN: ACROSS THE SPIDER-VERSE>는 단순 사운드트랙 앨범 이상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Annihilate”, “Am I Dreaming”, “Hummingbird” 등 두고두고 언급될 명곡들을 배출한 것은 물론, Metro Boomin 특유의 기획력으로 트렌디하면서도 공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담으로, Metro Boomin은 멀티버스의 수많은 스파이더맨 중 하나로 영화 내에 등장한다.



2023년은 힙합이 탄생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런 만큼이나 할리우드 전체 또한 힙합의 반백살 생일에 축하 인사를 보내고 있는 듯하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의 예고편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같이 예고편 음악으로 과거 힙합 명곡들을 편곡해 삽입하고 있다. <Black Adam>에는 JAY-Z와 Kanye West의 “Murder To Excellence”가, <John Wick: Chapter 4>에는 Nas의 “Got Ur Self A Gun”이, <Transformers: Rise of the Beasts>에는 The Notorious B.I.G.의 “Juicy”와 DMX의 “Ruff Ryders’ Anthem”이, <Shazam 2>에는 Eminem의 “Business”가, <The Marvels>에는 Beastie Boys의 “Intergalactic”이 삽입되었다. 이 영광이야말로, 힙합이 문화계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하나의 ‘클래식’이란 가장 강력한 방증이 아닐까. 그렇기에 향후 힙합과 영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악수를 나눌 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힙합 장르의 음악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대륙, 국가별로 각자의 특색 있는 씬을 가지게 되었지만,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해외의 힙합 씬은 베일에 싸인 존재처럼 신비감과 낯섦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번엔 신비로운 “제3의 국가”的 아티스트들 중 트랩씬에서 인상적인 활동을 남긴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 yy02

yy02 (추천 앨범 <劣迹艺人>)

yy02는 Yung Lean과 Drain Gang의 멤버들이 속한 레이블로 알려져 있는 YEAR0001과 계약을 맺은 Bloodz Boi의 또 다른 활동명으로, 본래는 클라우드 랩에 앰비언트 팝(Ambient Pop), 트랜스(Trance) 등 다양한 장르를 섞어낸 음악을 추구하는 그가 조금 더 힙합에 가까운 음악을 발매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중국의 또 다른 플러그(plugg) 래퍼 Jackzebra와의 싱글들을 공개하기도 했던 Bloodz Boi는 올해 플러그 장르를 다룬 믹스 테이프 <劣迹艺人>를 발매해 다크 플러그(Dark Plugg), 플럭앤비(PluggnB) 등 플러그의 하위 장르에서의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이제 중국의 플러그를 주목해야 할 때”라는 캡션을 통해 중국의 힙합 씬의 다양성을 향한 야망을 내비쳤다.



## 아르헨티나

Swaggerboyz(AgusFortnite2008, STIFFY) (추천 앨범 <PLUG PARK>, <STIFFYHOVEN>)

2023년 아르헨티나 출신의 힙합 아티스트들은 영광의 한 해를 보냈다.

Bizarrap은 2023년 스포티파이에서 9번째로 많이 스트리밍 된 곡의 프로듀서가 되었고 그런 Bizarrap의 손을 잡은 2006년생 래퍼 Milo J는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라틴어권 국가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유망주를 아득히 넘어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 1,700만 명이 넘는 랩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이들은 메인스트림과는 거리가 꽤나 멀다.



Swagger Boyz라는 다소 촌스러운 팀명으로 뭉친 AgusFortnite2008, STIFFY 이 두 명이 그 주인공으로, 플러그, 밥(Bop) 등 트랩의 여러 하위장르들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뻔뻔함이다. AgusFortnite2008은 <Bobajitzan>을 발매하며 영국을 적으로 둔 중동의 테러리스트라는 다소 선을 넘는 듯한 기믹을 내세우는가 하면, <STIFFYHOVEN>과 <STIFFY BRAVO>에서의 STIFFY는 2010년대 초반의 래퍼들처럼 밥과 퓨처리스틱 스웨(Futuristic Swag)의 사운드 위에서 바지를 한껏 내리고 과장된 제스처와 함께 랩을 뺐어 댄다. SwaggerBoyz는 현재 힙합씬에서 활동하는 많은 치프 키프(Chief Keef)의 자녀들 중에서도 특색 있는 사운드를 자랑하며,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들들로 보인다.

## 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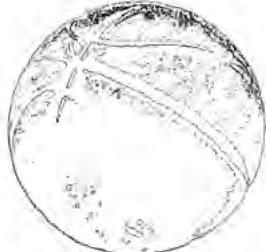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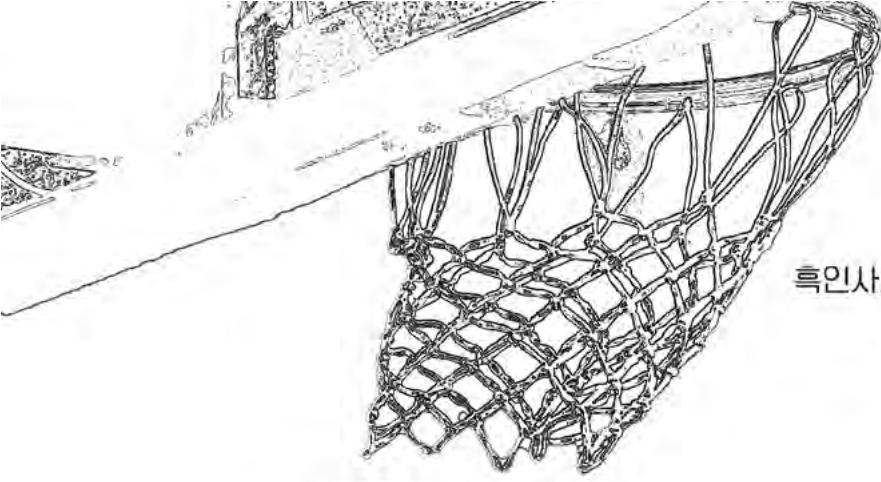
PLOHOYPAREN (추천 앨범 <ПЛОХОЙ ПОЦ>)

중성적인 보이스 톤이 매력적인 PLOHOYPAREN은 2021년, 무시하지 못할 한 해를 보냈다. <ГДЕ ПЛОХОЙ ПОЦ?>, <ПЛОХОЙ ПОЦ>, <ГРЯЗНЫЙ КОЛДУН> 이 세 장의 앨범을 2021년에 발매했고, 이 앨범들 내에서 특색 있는 프로덕션 하에 디지코어(Digicore)나 레이지(Rage) 같은 트랩의 하위 장르들을 담아냈는데 앨범들을 발매했던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러시아 트랩씬에서 가장 앞서있는 음악을 만들던 래퍼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생각보다 성공해 버린 게임 스트리밍에 집중하고 있어 올해 싱글 한 개를 발매하는 것에 그쳤지만 젊은 나이에 러시아의 힙합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임은 분명하다.



Editor SongChico

영국, 미국 말고



흑인사회 속

# 농구와 힙합

미식축구, 야구, 하키 등 수많은 북미 스포츠가 있지만 농구는 흑인 커뮤니티에 있어서 단순 스포츠를 넘어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문화였다. 이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북미 흑인들의 주류 문화인 힙합의 요소 중 하나로 불릴 만하며 30년 넘게 그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농구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는 J. Cole의 <4 Your Eyez Only> 앨범 속 가사를 통해 대강 알 수 있다.

## 'They telling' hittas sell dope, rap or they go to NBA, in that order.'

해석하자면 '사람들은 말해, 갱스터들은 마약상이 되거나, 랩을 하거나 혹은 NBA에 가지' 정도가 되겠다. 흑인으로서 크게 성공하려면 불법적인 일로 부를 축적하거나 랩 혹은 농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근 상황은 비교적 나아졌지만, 2~30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들 사이에선 진심 반 장난 반으로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정도로 빠 있는 농담이나 디름없었다. Michael Jordan의 우아한 페 이더웨이 슛 품, Kobe Bryant의 맘바멘탈리티, Lebron James의 강렬한 플레이메이킹 등 흑인 슈퍼스타들의 능력과 명성 덕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흑인 사회에서 농구가 이렇게나 비중이 큰 문화인지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말이다.



농구가 흑인들의 스포츠가 된 이유를 자세히 파고들자면 비용, 사회적 분위기, 흑인 대이동을 뽑을 수 있다. 먼저 흑인 대이동(1900~1970)은 미국의 산업화 시기와 맞물려 진행됐다. 흑인들은 노예 시절부터 자유인이 된 시절까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고 농사에 최적화된 남부에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여러 산업과 상업적인 것들이 북부에 생기자 흑인들은 가난과 실업을 벗어나 북부 대도시로 떠났으며 백인 자본가 아래 값싼 일력이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그 당시 흑인들이 위에 명시된 미식축구, 야구, 하키를 즐길 수 없던 이유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다. 농구는 농구공과 골대 하나만 있다면 모래나 애스 팔트 위라도 교실보다 작은 반코트에서 4 대 4로 최대 8명이 즐길 수 있는 방면, 위 세 개의 스포츠는 기본 10만원을 호가하는 장비는 물론이거나 정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매우 큰 크기의 운동장을 요구한다. 당시 대도시 빈민가에 거주 중이었던 흑인들의 인구 밀도는 매우 높았을 뿐더러 백인과의 연봉 차이도 기본 몇 배는 차이났기에 중산층들이 사용하는 잘 관리된 운동장은 사용할 수 없었다. 더불어 힘들게 사용권을 얻는다 한들 백인 중심 시스템의 운동장에선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 심하면 집단 구타를 당할 수 있었다. 또 복잡한 룰과 어려운 입문 단계가 높은 스포츠들과 달리 농구는 입문 단계가 쉽고 혼자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스포츠인 것도 한몫을 했다.

흑인들이 다수 거주 중인 고인구밀도 빈민가에서 농구란 최적화된 스포츠였고, 이런 환경과 잘 맞물리면서 흑인 인재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었다. Magic Johnson과 Kareem Abdul Jabbar 등 여러 초기 농구 스타들은 어린 흑인 꼬마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의 명성과 부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꺼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다. 래퍼와 더불어 농구라는 꿈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유한 백인들 그 이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달콤한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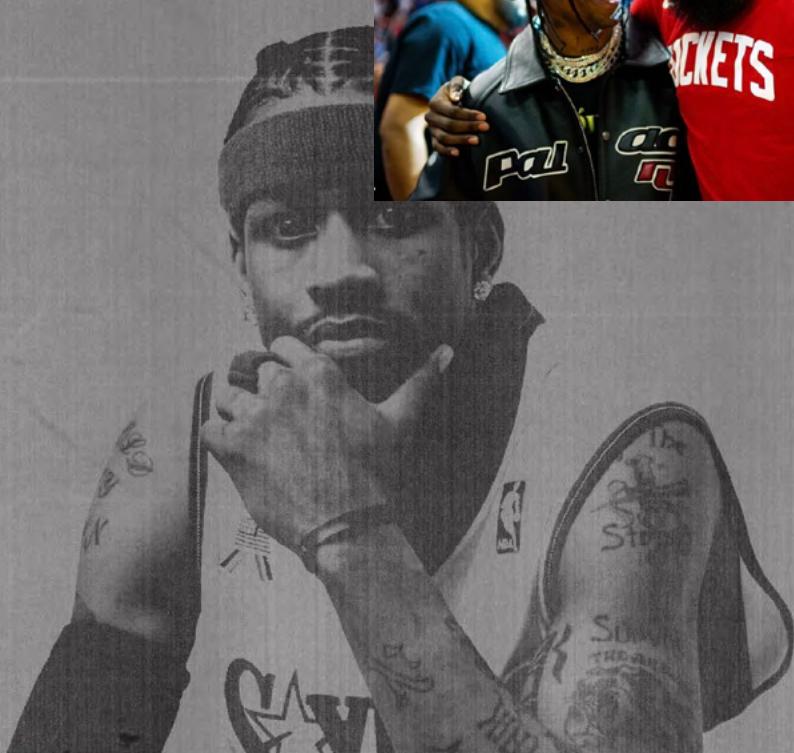
미국 농구선수 출신들 중 빈민가, 편부모, 폭력 등 래퍼들과 동일한 아픔을 공유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그럴까, 그들의 아픈 개인사를 돌아보면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았고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상호존중과 동료 문화로 이어진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고달픈 노숙생활에서 비롯된 허슬플레이의 Dennis Rodman, 훌어머니의 바쁜 경제활동으로 인해 유년 시절 거실에 혼자 차갑게 남겨진 Kevin Durant, 마약과 살인 등 각종 범죄가 도사리는 커튼에서 갱스터와 함께 자란 Demar Derozan 등 그들에겐 선택권이란 없었으며,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빈민가 출신 흑인 래퍼들 또한 최악의 조건을 뒤로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했다.

그렇다고 꼭 아픔만을 공유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영감 또한 얻었다. 대표적으로 끈질긴 끈기가 마치 독사를 보는 것 같아 '맘바멘탈리티'로 칭해지는 Kobe Bryant를 뽑을 수 있는데,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한계치를 뛰어넘으려는 그의 모습은 여러 가사에 인용될 정도로 래퍼들의 허슬 정신을 자극했다. 또 선수들의 멋있는 플레이를 통해 영감도 받는 경우가 있다. 마치 Stephen Curry의 3점 슛과 Lebron James의 현란한 덩크 등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하이라이트를 통해 말이다.

또 농구선수들이 성공 후 자신의 연고지 또는 고향에서 현신하고 기부하는 모습은 흑인 사회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모습 역시 래퍼들에게 후드 정신으로서 선명히 나타난다. 결국 이런 상황들은 어린아이들의 꿈을 만들어내며, 선순환을 지속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대감이 강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공통적인 뿌리를 지녔으며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수 겹치기에 이러한 시너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전까지는 둘의 관계가 힙합의 거의 일방적인 러브콜이었다면, Allen Iverson을 기점으로 전환된다. 멋있게 땋은 그의 머리, 잘생긴 외모, 혈렁한 저지, 타투, 래퍼들이 많이 사용하는 흑인 남부식 말투 등 그는 딱딱하고 질서정연한 NBA에 새로운 변화를 불어넣었다. 힙합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는 멋은 날것의 미가 무엇인지를 톡톡히 보여줬다. 좌우로 튀기며 상대를 뚫고 돌파하는 크로스오버 같이 농구 팬들의 심장과 힙합 팬들의 심장을 같이 뛰게 만든 그는 2000년대 이후 힙합과 농구의 결맹을 더 견고히 해주었다.

최근들어 Drake와 Lebron James, Travis Scott과 James Harden 등 래퍼와 농구선수의 친밀감은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으며 Damian Lillard 와 Lamelo Ball 등이 힙합 앨범을 발매하면서 농구 선수들 또한 래퍼를 자처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농구와 힙합, 90년대부터 시간이 지나갈수록 둘의 사이는 가까워지고 있으며, 단순 상이한 두 독립 분야의 합산로서는 정의하기 복잡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어쩌면 나중엔 힙합의 요소 중 하나로 농구가 소개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며 두 사이의 밝은 전망을 기대해 본다.





# 2023, RECAP

w/HOM 선정 연말 결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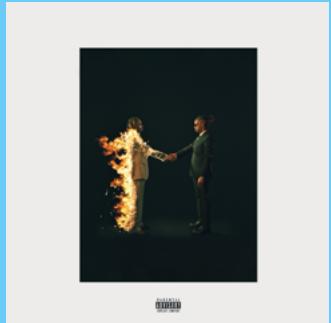
Editors Honorable Mention

+

기타장르 결산

2023년의 마지막 이슈에서 w/HAUS OF MATTERS의 에디터들이 선정한 올해의 앨범들을 공개합니다. 22년 12월부터 23년 11월 까지 발매된 블랙뮤직 앨범을 대상으로 각 에디터들이 20장의 작품을 꼽았으며, 이 중 여려 기준을 만족한 상위 20여 장의 작품을 발매 일자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리스트가 2023년에는 어떠한 작품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 주었는지를 함께 돌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W/HOM, 2023 RECAP



## Heroes & Villains Metro Boomin

2022.12.02  
Editor SongChico

트랩을 예술로서 짊어 매고, 진정한 '프로듀서'로서의 발걸음 (온암)

그 누구보다 커머셜 한 힙합으로 영웅과 악당 모두를 사로잡다 (ryuzimoto)

메트로 부민(Metro Boomin)은 사운드적으로는 더욱 넓어진, 스토리적으로는 더욱 깊어진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전작에서부터 화자를 맡아 왔던 배우 Morgan Freeman에 이어 A\$AP Rocky도 이 앨범의 화자로 새로 등장하는가 하면, 피쳐링 멤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캐릭터로 변신해 하이로 물이라는 본작의 컨셉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메트로 부민은 자신의 주무기인 신스 웨이브와 결합된 트랩 사운드 외에도, 침명크 소울 트랙이나 복고풍의 R&B 트랙까지 넓어진 스펙트럼을 뽐내곤 했다. 랩스타들이 총출동해 “누가 하이로이고 누가 빌런인가?” 하는 의문점을 던진 본작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 SOS SZA

2022.12.09  
Editor SongChico

홀로 덤덤하게 풀어놓는 아름답고도 잔인한 사랑 이야기 (자카)

가장 찬란한 시기, 정신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터뜨리는 고독의 담지자 (Indie Aisle)

그간 이별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많고 많은 앨범들이 있었지만 시저 (SZA)의 <SOS>만큼 이별을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자세하게 음미하고, 과정을 세세히 드러낸 앨범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별 후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그려내는 동안, 시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돌려 말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자신이 놓인 상황과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꺼내 놓았고, 그 점이 되려 이 앨범에 폭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다. 날 것의 가사와 시자가 보여주는 훌륭한 보컬 퍼포먼스를 따라 감상하다 결국 이별을 극복하고 인정하는 순간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이 앨범이 선사하는 최고의 순간이었다.



## NO THANK YOU

Little Simz

2022.12.12  
Editor 앞날

나의 미결에 덧붙여진 지리멸렬한 강박들에게, 제목을 스스럼없이 곱씹길 바라며  
(Indie Aisle)

어떤 분위기에도 상관없이 뿐어져 나오는 UK씬 최고 래퍼의 매력 (Songchico)

<NO THANK YOU>는 리틀 심즈(Little Simz)의 내면이 청중을 향한 앨범이다. 바로 전작 <SIMBI>가 본인을 둘러싼 사회와 문제, 복잡한 내면을 다뤘다면, 본작은 그 내면에 집중해 자기고백의 방식을 택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듀서 인플로(inflo)의 미니멀하며 간단한 로파이한 비트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가스펠이 필요했다. 오직 심즈의 솔직함을 부각하기 위한 형태로 말이다. 덕분에 본 작품이 자랑하는 것은 더욱 넓어진 심즈의 서정성이다. 어쩌면 그녀의 가장 큰 장기는 감정을 마주하고서 제시하는 솔직함이 아닐까. 그것도 내성적이지만 당당할 수 있다는 말로써 말이다.



## Let's Start Here

Lil Yachty

2023.01.27  
Editor SongChico

2023년 최고의 반전, 혹은 아티스트로서의 진정한 첫걸음 (온암)

릴 야티가 이런 작품을 들고 올지, 그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자카)

처음 주목받던 멜로디 랩부터 디트로이트 트랩, 드릴, 레이지까지 릴 야티 (Lil Yachty)는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며 스스로를 진화시킨 아티스트이다. <Let's Start Here>는 그런 릴 야티가 다른 래퍼들에 비해 한 단계 더 앞서 나감을 세상에 알리고자 꺼내든 선고서이자 한번 더 진화했음을 알리는 출사표이다. 릴 야티는 해당 앨범에서 Tame Impala나 Pink Floyd를 연상케 하는 네오-사이키델릭 사운드를 자신의 것처럼 무리 없이 구사해 냈고 세상이 릴 야티를 더 이상 트랩에 국한된 래퍼가 아닌 차기작이 기대되는 아티스트로 주목하기 시작한 데에는 이 앨범의 역할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W/HOM, 2023 RECAP



## SCARING THE HOES JPEGMAFIA & DANNY BROWN

2023.03.24  
Editor 온암

익스페리멘탈 힙합 씬을 대표하는 두 아티스트의 만남. 그 조화는 가히 환상적이다  
(공ZA)

이거 듣고 쓸았어요 (BlackMatter)

인터넷 음악 너드들의 아이돌이 포스트 Kanye West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LP!>로 새 시대의 이름이 '익스페리멘탈'임을 천명한 제이펙마피아 (JPEGMAFIA)는 또 다른 익스페리멘탈 힙합의 거장 대니 브라운(Danny Brown)과 손을 잡으며 힙합 사운드를 완전히 다른 경지로 이끌고 간다. 10년 전의 <Yeezus>쯤은 고상하게 들리게 할 만큼 과격한 샘플링과 전자 사운드 콜라주의 폭풍 속 드디오 정신없이 현란한 래핑으로 광폭한 잔치판을 벌인다. 하지만 이 음반의 진정한 가치는 그 가공할 음악적 완성도가 아닌, 이들의 목소리가 마침내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달았다는 사실에 있다.



## CALL ME IF YOU GET LOST : The Estate Sale Tyler, The Creator

2023.03.31  
Editor 공ZA

2년 만의 해후가 소극적 열반의 뒤풀이일지라도, '나는 타일러가 주는 정오의 열기가 좋다' (Indie Aisle)

2년 단위로 정규 앨범 단위의 작업물을 발매하며 팬들의 귀를 만족시켰던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Tyler, The Creator)는 올해를 안식년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특별한 작업물을 본작을 통해 선보인다. 장르 팬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4집, 5집과 같은 보다 따듯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랩 퍼포먼스를 강조함으로써 전작의 흐름까지 보기 좋게 이어갔다. 더불어 퍼렐 윌리엄스, 매들린, 칸예 웨스트 등 씬에서 내로라하는 프로듀서들과의 호흡은 선물과도 같은 본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하지만 가장 빛나는 건 격년으로 돌아오면서도 퀄리티를 유지하는 타일러 본인이다.



## NEVER ENOUGH

Daniel Caesar

2023.04.07  
Editor 공ZA

수용하기 쉬운 아름다움에서 찾아낸 예상외의 깊이 (온암)

SNS를 통해 본인의 컴백 소식을 간간이 알리며 팬들의 마음을 애태웠던 다니엘 시저(Daniel Caesar)는 <NEVER ENOUGH>라는 앨범의 이름과 다르게 기다리던 청자들의 마음을 꽤나 충분한 만족감으로 채워주었다. 메가 히트 싱글이 여럿 수록된 그의 데뷔 앨범과는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차분한 어조로 사랑을 속삭인다. 하지만 다니엘 시저가 일관적인 미니멀한 사운드 위에서 사랑은 전달하는 방식은 보다 성숙해졌다. 멜로디를 옮조리는 섬세한 창법, 호소력이 돋보이는 팔세토 기법, 이를 감싸주는 겹겹이 쌓인 화음이 조화를 이루며 당신을 향한 사랑은 '절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노래한다.

숨 막히는 감정의 제언들을 찬란한 로맨티시즘으로 조각하기 (Indie Aisle)



## Maps

billy woods & Kenny Segal

2023.05.05  
Editor 앞날

불안하지만 동시에 대안적인 목적지를 가리키는 그들의 지도 (ryuzimoto)

빌리 우즈(billy woods)와 케니 세갈(Kenny Segal)의 두 번째 합작 앨범, <Maps>는 케니의 프로듀싱과 빌리의 랩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였는지 탐구를 요하는 작품이다. 투박하고 거칠없는 질감의 비트나 고요하며 소울풀한 비트 위로 최면을 거는 듯한 추상적인 빌리의 랩까지, 둘의 하모니는 듣는 이의 귀를 넘어 심상을 자극하는 데까지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들이 보낸 일련의 투어 과정은 불안으로 가득 찬 정서를 보여주나 창의성과 예술성은 여전히 빛난다. 만일 그들의 투어에 현혹된다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그저 그들이 그려놓은 지도가 광활하고도 풍부한 자료를 담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 두오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건지 (자카)

# W/HOM, 2023 REC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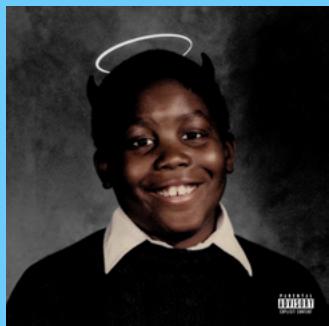
## Beloved! Paradise! Jazz!? McKinley Dixon

2023.06.02  
Editor 앞날

재즈랩의 팬이라면 사랑해 마지않는 앨범 (Songchico)

주목할 만한 신예는 매년 등장하기 마련이나, 이번만은 뭔가 색다르다 (온암)

맥킨리 딕슨(Mckinley Dixon)의 본 앨범 제목, <Beloved! Paradise! Jazz!>는 토니 모리슨의 소설 제목에서 따왔다. 그 배경을 놓고 봤을 때, 그가 마주했던 친구의 죽음과 가족의 애정, 존재의 정의, 종교에 대한 귀의의 주제는 흥미로우며 역동적인 재즈의 선율 위에서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첫 시작부터 앨범이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앨범의 배경은 딕슨 본인이 속한 흑인 사회의 무대기도 했지만, 소설의 무대이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큰 주제이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혼란한 사회상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사랑, 그리고 극복이라는 주제가 최후에는 무대에서 맞닥뜨리며 아름다운 충돌을 그려냈다.



## MICHAEL Killer Mike

2023.06.16  
Editor 온암

깊은 신앙에서 비롯된 가스펠 힙합으로 흑인 Michael의 인생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 (45)

EL-P는 곁에 있지만 Killer Mike는 혼자서도 본인의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래퍼다 (공ZA)

RTJ의 반쪽을 기대했다면 래퍼 킬러 마이크 (Killer Mike)를, 래퍼 킬러 마이크를 기대했다면 인간 마이클 렌더(Michael Render)를 마주하라. 애틀란타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 지역 사회와 흑인 민권을 위해 열렬히 투쟁했던 킬러 마이크는 그 시선을 개인으로 축소해가며 블랙 가스펠 기반의 힙합 간증으로 청자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고 또 감정적으로 몰입시킨다. <MICHAEL>은 결코 <Run The Jewels> 시리즈만큼이나 우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지하는 가치만큼은 다르다. 훨씬 개인적이고 자기고백적이다. 그것이 마이클이 본작을 만든 이유이며, 이 음반을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할 이유이다.



## UTOPIA

Travis Scott

2023.07.28  
Editor 온암

탄압의 대명사 스캇을 버리고 차갑고 날카로워진 스캇 (45)

이 시대의 랩스타가 5년 만에 들고 온 블록버스터 앨범 (Songchico)

트래비스 스캇(Travis Scott) 정도 되는 초대형 랩스타가 상업적 전성기를 마다하고 새로운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는 데에는 강건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 힘의 근원은 그 자신의 과거와 Kanye West에 대한 선망에 존재하는 듯하다. 10년 전 데모곡들과 Kanye의 미완성곡을 적극적으로 선별해 강렬한 현대적 사운드로 재단한 그는 거장으로서의 도약을 염원하고, 그 열망을 음악에서 숨길 생각이 없어 보인다. 분명 흥미로우나 결코 위대하거나 혁신적이진 않다. 하지만 <UTOPIA>의 의의는 스캇이 메인스트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도 그의 음악성을 온존했다는 사실에 있다.



## Sundial

Noname

2023.08.11  
Editor 45

담담하게 짚조리는 그녀의 크리틱 한 사상적 고찰 (ryuzimoto)

그녀만의 해시계를 따라, 음악은 사랑스럽고 필기는 작가주의적으로 (온암)

앨범은 제목인 '해시계'와 유사하다. 겉면은 부드러운 재즈가 감싸지만, 그 내부에서 노네임(Noname)은 사회 암면을 날카롭게 고발한다. 마치 해시계가 받는 따뜻한 햇볕과 그 밑에 생긴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처럼 말이다. 노네임은 과거의 노골적인 차별과는 달리 암약하는 현재의 차별을 지적한다. 또 현대 시계와 달리 계절마다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해시계처럼, 사회에 영원한 악자는 없고 그 경계선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이래서 그럴까, 직설적인 표현보단 다시 한번 생각할 시사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앨범을 즐긴다는 생각보단 하나의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감상을 들게 한다.

# W/HOM, 2023 RECAP



## PUNK TACTICS

Joey Valence & Brae

2023.09.08

Editor ryuzimoto

미드스쿨의 사운드가 2023년의 방식을 따르면 생기는 일 (Songchico)



## Magic 3

Nas

2023.09.14

Editor 온암

시대를 불문하고 Illmatic의 환희를 원하는 이들에게, 나스가 부릅니다 'I'm Still Standing' (Indie Aisle)

Hit-Boy와 함께 일궈낸 힙합 역사상 가장 담백한 트릴로지의 엔딩 (ryuzimoto)

과거 빛나던 영광의 순간을 현시대에 재현하는 것은 환영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크리티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아티스트들은 애초에 이 같은 시도를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조이밸런스 & 브레이(Joey Valence & Brae)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겁이 없었고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평가가 내려질지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략이자 동시에 평크 정신이었다. 80~90년대 비스티보이즈, 런디엠씨가 보여준 에너지를 유연하게 재해석한 그들의 퍼포먼스는 물론 익숙하다. 하지만 현시점인 23년에도 여전히 구미가 당기는 건 사실이다. 역시나 아는 맛이 가장 무섭다.

<King's Disease>부터 시작해 <Magic 3>에서 종결된 나스(Nas) & 힙보이(Hit-Boy) 듀오 간의 긴밀한 협력, 3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실제 결과물도 충분히 값지지만, 그보다는 상징적인 의의가 막대하다. 나스는 <Illmatic> 이후 명성에 비해 애매하다는 디스코그래피에 대한 평가를 180도 전환했으며, 그가 반백의 나이에도 그 어떤 래퍼보다도 존재한다는 것을 모범적인 결과물로 가장 짜릿하게 증명했다. <Magic 3>는 그 영광에 걸맞은 우아한 피날레이자, 동시에 나스와 힙합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기념비와 같다.



## We Buy Diabetic Test Strips

Armand Hammer

2023.09.29  
Editor 온암

추상의 내러티브들을 정신없이 흘 뿐이다가도 고요한 정신에 촉촉한 파문을 일으킨다  
(Indie Aisle)

엘루시드의 잠재력을 보여준 작품 (자카)

<We Buy Diabetic Test Strips>는 아만드 해머(Armand Hammer)가 지금껏 시도한 모든 음악 스타일의 총합이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진보이기도 하다. 앱스트랙, 익스페리멘탈, 재즈, 앰비언트, 인더스트리얼 등 불시적인 장르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가운데 빌리 우즈(billy woods)와 일루시드(E L U C I D)는 작가주의적 문장을 능숙히 다루며 여전한 역량을 과시함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탈한 논점들을 제시한다. 결코 이보다 나을 순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계 따윈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다시금 진화하는 이들 뒤오는 분명 힙합 씬에서 가장 경이로운 존재들이다.

## Voir Dire Earl Sweatshirts & The Alchemist

2023.10.06  
Editor ryuzimoto

절제되고 우울하나, 그 또한 삶이니 즐거운 것 (앞날)

낭설도 끝까지 반복하면 코미디가 되고, 동어반복도 끝까지 반복하면 예술이 된다 (온암)

얼 스웻셔츠(Earl Sweatshirts)와 알케미스트(The Alchemist)의 <Voir Dire>는 단순히 미니멀리즘의 매력이 담긴 작품이라고만 하기엔 아까운 앨범이다. 그보다는 본질적인 면에 집중할 여지를 주면서 동시에 장엄하고 예술적 성취보단, 간결하고 익살스러움을 추구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다. 이는 과열된 상업적 공산품들과 장엄한 예술품들 사이 <Voir Dire>가 추구하는 태도이자 진면목이다. 물론 앨범 자체의 퀄리티에는 다양한 이견이 오갈 수 있지만, 우린 그저 얼의 어두움과 알케미스트의 쾌청함이 섞인 회색지대를 25분 동안 온전하게 묵시하면 그만인 것이 아닐까.

# W/HOM, 2023 RECAP



## A Great Chaos

Ken Ca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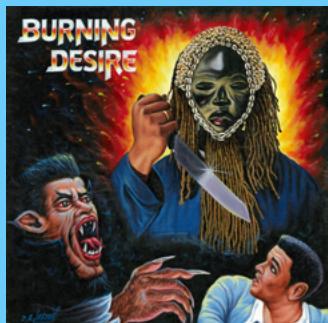
2023.10.13

Editor 45

올해 가장 놀라운 앨범이 아닐지 (BlackMatter)

뻔함을 갈고닦으면 밀려오는 적을 하나둘씩 베어 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공ZA)

Playboi Carti의 부재와 Opium 사단의 연속된 흥행 부재 아래 레이지의 입지는 크게 훈들렸다. 지나치게 자기복제적이고 진부한 기준 레이지 사운드를 타파하고자 켄 칼슨(Ken Carson)이 나섰다. 반복적인 고음의 시퀀스, 곡마다 다른 디스토션, 기존의 일관된 플로우와 보컬 방식을 벗어난 다양한 보컬 방식과 플로우 등 레이지의 이점은 그대로 가져오되 악습들은 잘라내려는 모습이 보였다. 이외에도 정통 애틀랜타 트랩의 향과 레이지를 혼합하여 켄 칼슨만의 영역을 만들고자 했다. 켄 칼슨의 뛰어난 프로덕션 능력이 레이지 씬 안에서 돋보이는 것을 선포하는 앨범이었다.



## Burning Desire

MIKE

2023.10.13

Editor 온암

섬뜩한 아프리칸 가면 뒤에 숨겨진 뚜렷한 자신감 (ryuzimoto)

프로듀싱하면 프로듀싱, 랩이면 랩, 양쪽의 토끼를 모두 잡았다 (앞날)

マイク(MIKE)의 음악은 득립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의 음향적 대체안이다. 로파이 음악 특유의 독특한 질감을 유지시키는 마이크의 이명, dj blackpower의 샘플링은 본작에 이르러 그만의 독특한 바운더리를 완성시킨다. 동시에 7~80년대의 시대감을 조성하는 신시사이저와 추가 악기의 투입으로 프로덕션의 수준은 한층 향상된다. 바리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혼이라도 담긴 듯 감정적인 플로우를 수놓는 래퍼 마이크로서의 활약 또한 제할 수 없다. 비선형적인 그의 랩은 그의 음악이 그러하듯이 느리지만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간다. 결과적으로, 마이크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중대한 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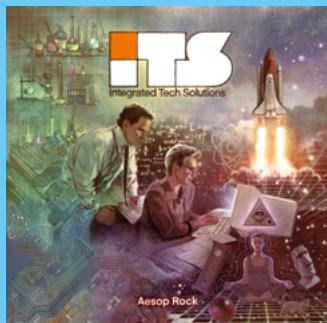
## Lahai Sampha

2023.10.19  
Editor 앞날

팽팽한 하늘 아래, 그저 걸어가는 빛나는 황야 (자카)

가정사의 우수로 휘황한 선율, 계절의 끝바람에 번뜩이는 음향 (Indie Aisle)

샘파(Sampha)의 <Lahai>가 흥미로운 이유는 샘파가 전작과 비교하여 음악적으로도, 가사 안에서도 크게 성장한 모습에 있다. 사랑을 갈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가 그려진 작품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샘파에게 <Lahai>라는 이름을 주었듯, 샘파 본인도 딸에게 이름을 남기며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본작은 시공간적으로 현재진행형의 작품이다. 본작의 다음 장이 갈매기가 바라보는 목적지에 달린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피아노와 악기들의 하모니 사이에서 발견한 딸과 본인의 가능성의 아닐까.



## Intergrated Tech Solutions Aesop R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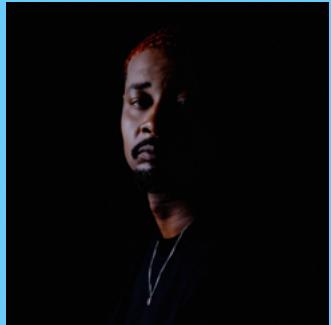
2023.11.10  
Editor ryuzimoto

마침내 어떠한 경지에 도달한 듯한, 혼존하는 최고의 랩 작사가 (온암)

커리어하이를 외쳐도 무방한 Aesop Rock의 또 다른 진화 (Songchico)

현 대중음악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메시지 전달이다. 이 역할에 가장 충실한 23년도 힙합 작품을 꼽아보자면 바로 이솝 락(Aesop Rock)의 <Intergrated Tech Soulutions>이다. 이 작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과학 기술의 성장과 진화된 문명, 또 여기에 맞춰 일어나는 인간관계와 일상 혹은 이슈이다. 하지만 조금 면밀하게 들어보자면 ‘완벽한 과학보다 더 가치 있는 건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다’라는 메시지가 그 속살을 뿐내고 있다. 여기에 이솝 락은 다양한 장르를 정연하게 녹여낸 프로덕션과 묵직한 랩을 더하여 우리를 아득하게 설득시켜 버린다.

# W/HOM, 2023 RECAP



## Quaranta Danny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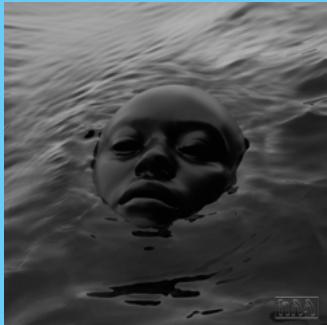
2023.11.17  
Editor 온암

이전의 대니 브라운에게서는 볼 수 없던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놓은 푸념 (자카)

대니 브라운의 마흔 살(Quaranta)은 자기 격리(Quarantine)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앞날)

40세. 한 인간으로선 딱히 젊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로선 더더욱 그렇지 않을 불혹의 나이이다. 지난 10년 동안 극소수의 래퍼를 제외하면 그 누구보다 경이로운 행적을 보여주었던 대니 브라운(Danny Brown)은 이제 삶의 풍파에 깍인 채로 자기고백의 시점에 이르렀음을 받아들인 것 같다. 그 어느 때보다 적막하고 음험한 비트 위 대니 브라운은 베테랑으로서의 래핑 역량을 여유로이 이용하며 전대미문의 깊이로 그의 서정적인 면모를 노출시킨다. <Quaranta>에서 목도할 수 있는 광경은 우리 중 그 어느 이도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었으나, 적어도 대니 본인에게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 Editors Honorable Mention



### Raven

Kelela

2023.02.10

Editor 45

동화적인 분위기, 물에 잠긴 듯한 사운드는 켈레라(Kelela)의 개인적인 감정과 흑인 여성으로써 느끼는 복잡한 심정을 풀이한다. 강렬한 드럼 앤 베이스와 축축한 신디사이저를 지나 마침내 부드러운 선율에 도달한다. 그녀만의 표현 방식으로 말이다. 가사로도 실기 힘든 그녀만의 생각들을 더 어려운 방법인 사운드로 표현하며, 드럼 앤 베이스와 앰비언트 장르의 트렌디함 위에 앨범의 완성도를 견고히 한다. 트랙을 하나씩 지날수록 누군가 발을 잡아당기듯이 나는 서서히 이 앨범에 녹아들며 곧 매료되었다. 이 앨범은 단연코 23년도 최고의 알앤비 앨범임이 분명하다.



### Jackman.

Jack Harlow

2023.04.28

Editor 자카

많은 평론지와 리스너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전작 <Come Home The Kids Miss You>가 자신의 음악적 한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잭 할로우(Jack Harlow)의 새로운 앨범 <Jackman.>은 다방면에서 뛰어난 작품이다. 프로덕션과 가사, 랩까지 모두 전작들에 비해 한 단계 더 성장하며 리스너들에게 본인이 아직 유망한 아티스트라는 것을 설득이라도 하는 듯하다. 단순한 플로우에 심심한 비트들을 눌러 담아 발생한 전작들의 '지루함'이라는 단점을, 이번 작품에서는 그 해결책을 찾은 듯 다양한 사운드들을 곡에 추가하여 듣는 귀 또한 심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

## Editors Honorable Mention



### That! Feels Good!

Jessie Ware

2023.04.28

Editor 온암

혹자는 본작을 청취하며 Stevie Wonder, Silk Sonic, Daft Punk를 연상하지만, 제시 웨어(Jessie Ware)의 디스코 음악이 그들의 '타입' 정도로 치부되기엔 너무나도 오리지널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이는 없어 보인다. 2020년도에 등장할 디스코 중 이처럼 완숙하고도 유연한 <That! Feels Good!>을 상회할 음반이 존재하긴 할까? 디바로서의 가창은 강건하고도 폭발적이며, 편곡은 단순히 흥만 돌우게 하는 수준을 초월해 따스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본작을 듣는 순간만큼은 원초적인 행복을 저 너머로 엿볼 수 있다. 고차원적인 쾌감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이다.



### DÉTWAT

HiTech

2023.05.26

Editor SongChico

멀리는 80년대 디트로이트 테크노, 가깝게는 90년대 후반 시작된 게토테크의 사운드를 2020년대에 들고나온 하이테크(HiTech)는 1집 <Hi Tech>로 자신들의 고향인 디트로이트 씬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간 보여주었던 음악은 Milp Melly의 랩에 의존하는 형태에 가까웠지만 2집에 들어서는 더욱 향상된 테크노 프로덕션과 선을 오가는 가사들을 들고 돌아왔다. 또한 단순히 게토테크의 사운드를 답습하기보다는 이 사운드를 보다 현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으니 별안간 게토테크 부흥을 위해 뭉친 이 3인방의 행보를 지켜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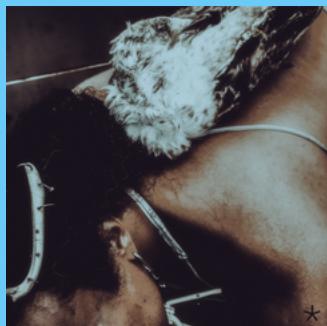
## Fountain Baby

Amaarae

2023.06.09

Editor 앞날

<Fountain Baby>를 단순히 아프로 팝으로 끓뚱그려 말하기엔 아마레이(Amaarae)의 독창성이 눈부시다. 치열했던 사랑 이야기와 고난의 인생사에서 위에서 그녀는 감정에 충실했으며, 생동감이 넘쳤다. 그토록 솔직하고 아름다울 수 있던 까닭은 아프로 비트를 바탕으로 알앤비와 록을 결합한 아프로 팝의 길을 제시한 점도 있겠으나,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메시지로부터 순수하게 창조해 낸 아름다움과 자유로움이 큰 지분을 차지했다. 바로 그것이 매력이다. 퍼커션 장치는 오직 넘치는 생동감과 눈부신 독창성을 극대화하는 데 백분 활용되었고, 그사이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여리 악기가 아닌 독특한 보컬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녀 자신이니까.



## Not A Dream But A Controlled Explosion

Iceboy Violet

2023.08.03

Editor ryuzimoto

끝없이 무언가를 탐구하고 갈망하는 아이스보이 바이올렛(Iceboy Violet)에게 23년도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한 해이다. 장르의 바운더리를 불안정하게 허문 작품<Not a Dream But a Controlled Explosion>를 통해서 말이다. 여기서 그가 발견해낸 진리는 “우리가 갈망하고 동경하며 꿈꾸는 삶의 모습들은 환상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국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일 뿐이다”라는 것이다. 암흑으로 뒤덮인 우주가 연상되는 압도적인 사운드 위에서 그는 뚜렷한 인사이트를 토대로 조금은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보고서를 써내려간다.

## 기타 장르 결산



### Me Chama De Gato Que Eu Sou Sua Ana Frango Eletrico

2023.10.20  
Editor SongChico

Ana Frango Eletrico는 브라질 팝(MPB) 씬의 젊은 아티스트들 중 근 몇 년간 가장 큰 예술적 성취를 보여준 아티스트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난 작에서 60년대의 향취를 담아냈던 그녀가 이번엔 7~80년대를 오가며 더욱 횡기한 사운드를 담아냈다. 한 앨범 내에서 디스코, 힙크, 보사 노바, 베드룸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내는가 하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와 같이 직설적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운드적으로도, 메시지로도, 그녀는 이번에도 자신의 재능을 가감 없이 발산해 냈고, 그 재능이 현재 브라질의 음악계가 가진 큰 무기 중 하나임이 증명되었다.



### softscars yeule

2023.09.22  
Editor BlackMatter

Wires and blood, 이 상반된 두 단어의 병렬은 그 사이 영원한 거리를 둔 것 같지만, 병렬 회로가 그렇듯 같은 종점을 두고 있다. 각각의 단어가 상징하는 코드와 인간 또한 그렇다. 코딩의 고충 중 하나는 찾기도 없애기도 어려운 글리치를 해결하는 것이다. yeule의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 <softscars>는 코드 속 글리치와 같이 영원한 흔적을 남기며 치유되지 않는 우리들의 가장 은밀하고 여린 상처를 어루만진다. 누군가에게는 이 상처의 근원이 자신이기도, 타인이기도 하다. 울은 이 넓고도 깊은, 그리고 영원한 상흔 속에서 찾아낸 불완전성의 아름다움으로 이 상처를 극복하고자 한다.



## Javelin

Sufjan Stevens

2023.10.06  
Editor Indie Aisle

금년의 인디씬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가열찬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명멸했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충격은 누가 뭐래도 싱그러운 합창단과 어쿠스틱의 몽타주를 선율 위에 흘뿌리며 나타난 수프얀 스티븐스(Sufjan Stevens)의 귀환이었다. 적어도 내게는 말이다. 어떤 테마를 다루던지 간에 '상실'의 틀을 구의 저 밀바닥에 깔아두고 사건과 소리들을 쌓아올린 수프얀의 서사에, 이번엔 '이별'의 가을 연가가 한 스푼 올려졌다. 그리고 <Javelin>은 순수성을 건드는 작업이다. 어째서 그의 세계에 상실이 필연적이나는 질문에 앨범은 대답 대신 동화적 선율들을 얹껏 선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함을 알고있다. 그가 언제나 그랬듯이.



## Did you know that there's a tunnel under Ocean Blvd

Lana Del Rey

2023.03.24  
Editor 온암

라나 멜 레이(Lana Del Rey)의 커리어는 그녀의 매그넘 오퍼스인 5집을 기준으로 분기된다. 이전까지 트립 합과 아트 팝을 오가며 할리우드 새드코어를 노래하던 라나는 이제 피아노 락과 포크를 중심으로 더욱 개인적이고 목가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떤 쪽이 더 좋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확실한 점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일체의 가식조차 허락하지 않은 이후 감정을 다루는 그녀의 능력이 비로소 만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Ocean Blvd> 앨범이 그렇게 발표한 음반 중 단연 최고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보인다. 연약한 내면을 진솔함과 대담함으로 연장하며 고요하게 내딛은 아방가르드 여신의 발자국 하나, 둘.

## 기타 장르 결산



### HELLMODE

Jeff Rosenstock

2023.09.01

Editor 앞날

제프 로젠톤스톡(Jeff Rosenstock)의 <Hellmode>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혼재한 불안들과 파괴적인 모습들 사이에서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핑크 록을 다양한 장치와 함께 맞물려 놓아 흥미로운 작품으로 완성했다. 특히나 본작은 인디 록을 차용해 종종 차분하고 담담한 진행을 보이는 곡이 존재하는데, 이후 등장하는 핑크 특유의 보컬과 기타 연주와 대비되며 강렬한 쾌감을 선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시 가장 매력적인 것은 핑크라는 본인의 주력 장르를 놓치지 않은 치밀함이다. 결국 로젠톤스톡은 지난 9년 동안 시종일관 유지해 온 날 것의 태도와 음악성을 응축하여 <Hellmode>란 결실을 일궈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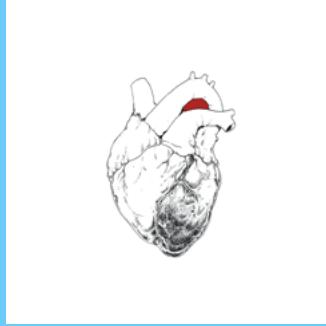
### Heaven Knows

PinkPantheress

2023.11.10

Editor 공ZA

도파민 중독과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트렌드. 음악 시장도 이런 흐름과 맞게 틱톡이나 릴스, 유튜브 솟폼 등의 콘텐츠 속에 십입되는 짧고 강렬한 음악에 집중하게 되었다. 핑크팬서리스(PinkPantheress)는 급변하는 유행 속에 과감하게 몸을 던진 아티스트 중 하나였고, 이는 대중들의 폭발적인 주목이라는 결과를 자아내기에 이른다. 하지만 데뷔 앨범 <Heaven Knows>에서는 그녀가 주목 받았던 이유를 잠시 내려놓고, 달콤하면서도 야릇한 음색을 드럼 앤 베이스라 지칭되는 전자음악 사운드 위에서 부드럽게 속삭인다. 전작보다 호흡은 길지만, 오히려 그녀가 펼쳐나갈 음악 세계가 더욱 기대되는 건 왜일까?



## The Beggar

Swans

2023.06.23  
Editor 자카

스완스(Swans)의 4년 만의 앨범, <The Beggar>는 나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은 앨범이다. 앨범과 수록곡들의 길이가 길기로 유명한 스완스 앨범 중에서도 이번 <The Beggar>는 특히 길고 더 느린 앨범이다. 하지만 이 앨범은 그런 긴 시간들도 다 참고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앨범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트랙은 44분의 길이를 가진 10번 트랙, “The Beggar Lover (Three)”인데, 웬만한 다른 앨범들보다 길이가 긴 이 트랙은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진다. 과연 인간이 만든 음악이 맞는지 의심하게 될 정도의 아름다움이다.



## Something To Give Each Other

Troye Sivan

2023.10.13  
Editor 자카

[Something To Give Each Other]은 트로이 시반의 전체 디스코그래피를 통틀어서 가장 뒤떨어지는 작품이다. 1~3번 트랙은 시반의 전체 커리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트랙들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4번 트랙부터는 그저 비슷비슷하게만 느껴지고, 트랙 하나하나의 기승전결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편하게 듣고 자주 찾기는 좋은 앨범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아쉬움이라는 꼬리표가 자꾸만 따라붙는다. 그와 동시에 이 앨범은 또 한 번 나에게 따듯한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듯 했다. 그저 평범하게 풀어낸 사랑 이야기 하나하나가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앨범이 끝나고도 내게 짙은 잔상을 남겼다.

## CREDIT

### SongChico

벌써 w/HOMI 만들어진지 4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내년도 올해처럼 재밌고 흥미로운 소식들 많이 들고 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 온암

환희로 써내려간 제 고뇌가 여러분께 잠깐의 숨고르기라도 되었기를

### BlackMatter

4개월 간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팀원분들 그리고 독자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KHL이 공허한  
연말을 메꿔줄 수 있는 하나의 마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공ZA

매거진 읽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즐거운 연말, 행복한 새해  
보내세요 ㅎ ㅎ

### ryuzimoto

KHL과 저희 팀원 그리고 류지모토 이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더  
바라는 건 없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매번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 45

얼마전에 KHL에 들어왔는데 벌써 6개월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해  
보내세요.

### 자이즈

멋진 사람들과 멋진 매거진으로 멋진 2023년을 만들었던 멋진  
자이즈입니다. 2024년에도 멋짐이란게 폭☆발하는 우리들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쪽쪽

### ikidk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챙겨봐주시는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플레이리스트



w/hom.x\_mas.wav



상단 아이콘 클릭 시 w/HOM 매거진에서 제작한 크리스마스 플레이리스트로 이동합니다.

(좌. 애플뮤직, 우. 스포티파이)

